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박사 학위 논문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 대인관계스트레스
및 대인관계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2023년 0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교육컨설팅학과

김명희

교육학박사학위논문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 대인관계스트레스
및 대인관계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지도교수 천성문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교육컨설팅학과

김명희

김명희의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2월 17일



위원장	교육학박사	강 승 희	
위원	철학박사	주 동 범	
위원	문학박사	최 은 영	
위원	심리학박사	이 상 일	
위원	교육학박사	천 성 문	

목 차

Abstrac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10
3. 용어의 정의	11

II. 이론적 배경

1. 인간-동물 상호작용	13
2. 공감능력	17
3. 자기위로능력	20
4. 대인관계 스트레스	23
5. 대인관계	25
6.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28

III. 방 법

1. 연구대상	35
2. 측정도구	38
3. 자료수집 및 절차	43
4. 자료 분석	44

IV. 결 과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45
2. 측정변인의 공선성 통계.....	47
3. 문항 꾸러미 제작.....	48
4.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49
5. 측정모형 검증.....	51
6. 구조모형 검증.....	55
7. 최종 연구모형의 직·간접효과 분석.....	60

V. 논 의.....	64
-------------	----

참고문헌.....	75
-----------	----

국문초록.....	93
-----------	----

부록.....	95
---------	----

1. 인간-동물 상호작용.....	96
2. 공감능력.....	97
3. 자기위로능력.....	99
4. 대인관계 스트레스.....	102
5. 대인관계.....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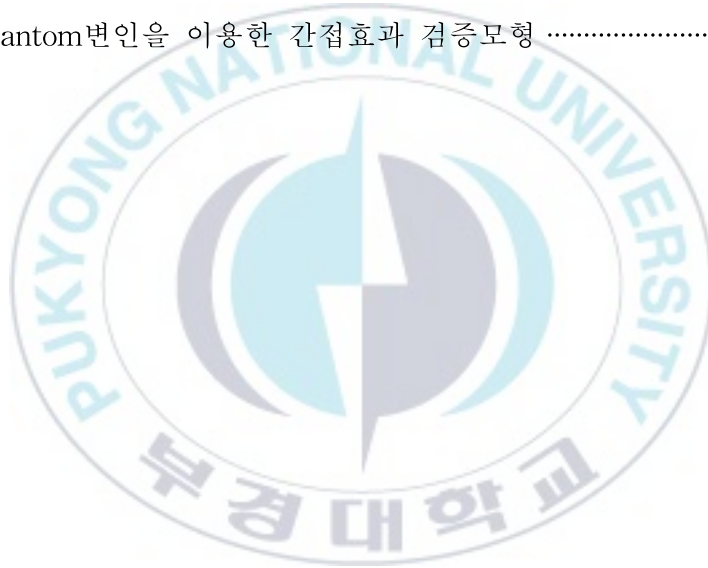
감사의 글.....	105
------------	-----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6
표 2. 인간-동물 상호작용의 하위요인 문항구성과 신뢰도	38
표 3. 공감능력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39
표 4. 자기위로능력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40
표 5.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41
표 6. 대인관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42
표 7.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46
표 8. 측정변인의 공차와 VIF값	47
표 9.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50
표 10.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51
표 11. 측정모형의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 모수 추정치	52
표 12. 측정모형의 CR과 AVE 검증결과	54
표 13. 초기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55
표 14. 초기 연구모형의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 모수 추정치	56
표 15. 최종 연구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58
표 16. 최종 연구모형의 총효과, 직·간접효과 분석	60
표 17. 최종 연구모형의 간접효과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62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모형	10
그림 2. 측정변인의 표준화 요인 부하량	53
그림 3. 초기 연구모형의 모수치 추정 결과(표준화계수)	56
그림 4. 최종 연구모형의 모수치 추정 결과(표준화계수)	58
그림 5. Phantom변인을 이용한 간접효과 검증모형	61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Human-Animal Interaction, Empathic Ability, Self-Comfort Ability, Interpersonal Str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Companion Animal Caregivers

Myoung Hee Kim

Department of Educational Consulting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dvisor : Seong Moon Ch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empathy ability, self-comfort ability, and interpersonal stress that the human-animal interaction of companion animal caregivers a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 causal structural model was established in which the interactions of companion animal caregivers with companion animals affec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rough empathy ability, self-comfort ability, and interpersonal stress. And finally, the fit of the model and the indirect effects of the variables were verified for the collected data of 547 companion animal guardia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irst, that the human-animal interaction of companion animal caregivers has a direct effect on empathy ability. It was also found that the companion animal caregiver's empathy ability and self-comfort ability has a direct e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However, interpersonal stress did not appear to have a direct e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cond, empathy ability showed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animal inter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companion animal caregivers. Third, empathy ability and self-comfort ability showed medi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animal inter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companion animal caregivers. Fourth,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in the human-animal inter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companion animal caregivers when passing through interpersonal stress in the empathy ability. Fifth, empathy ability and self-comfort ability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human-animal inter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companion animal caregivers.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when it was passed through the interpersonal stress. This affec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hen companion animal caregivers go through human-animal interaction, empathy ability, and self-comfort ability. On the other hand, it means that there is no special e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hen the self-comfort ability goes through interpersonal stress. In summary, it is believed that if the companion animal caregivers are interacting well with the companion animals that accept the caregivers unconditionally, the difficulti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ll be resolved and trust in the relationship will be restored. In addition, smooth interaction with companion animals will help the caregivers to quickly get out of uncomfortable feelings when they are in psychologically uncomfortable situations due to the accumulating experience of acceptance and understanding of your situation and emotions given by the animals. In other words, it can be interpreted as being able to maintain a more friendly and flexible relationship than the current interpersonal relationship by looking at oneself from an objective point of view.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to study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the effects of the companion animals in Korea, in which the studies are much scarce than in the West.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o confirm that empathy ability and self-comfort ability are effective as mediators for companion animal caregivers to have more intimat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inally, this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develop a program using companion animals as a medium to determine whethe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an be more intimate when focusing on certain paramet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based on this,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Companion Animal, Human-Animal Interaction, Empathic Ability, Self-Comfort Ability, Interpersonal Str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I. 서론

본 연구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 대인관계 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문제,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한국 전체 가구 수의 29.7%를 차지하고 있다(황원경, 손광표, 2021). 반려가구 수의 증가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호텔, 보험, 금융상품 등 반려동물 전용 상품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강윤경, 2017). 또한 통계청이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항목을 최초로 도입하였고(통계청, 2020), 아이 대신 반려동물만 기르며 사는 맞벌이 부부 역시 증가하고 있다(윤성민, 2016). 이러한 현상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 자체가 아닌 특별하고 중요한 관계로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동물을 쓰다듬거나 즐긴다는 의미로 애완동물 개념으로만 인식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람과 동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얻어지는 효과를 인정하면서 동물을 한 가족, 반려 또는 사회의 일원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반려동물이란 단어를 선호하고 있다(김성천, 노혜련, 1998). 이러한

맥락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보호해주는 사람을 반려동물 보호자로 지칭하고자 한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경험하고,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2000년대 초반부터 반려동물 효과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Allen, 2003). 이는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 높은 자존감과 긍정적인 기분을 갖게 하고, 더 큰 의욕과 삶의 만족을 느끼게 한다(심혜진, 2011; 이성은, 2022; Ramírez & Hernández, 2014). 특히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거나 사회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때 반려동물로부터 얻는 위로가 더 크다는 결과도 있다(Antonacopoulos & Pychyl, 2010; Zasloff & Kidd, 1994).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자아 정체감을 확인하는 계기도 제공한다(Bonas, McNicholas, & Collis, 2000). 그리고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효과가 대인관계에서 양과 질을 증가시켜 주는 사회적인 유희유 역할을 하기도 한다(한홍을, 1994). 이처럼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효과에 관해 모든 연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부정적인 견해의 연구들은 사람이 반려동물에게 우호적인 행동을 하는 것의 의미 없게 보기도 한다. 또한 반려동물 효과 연구는 동물애호가의 연구 편향으로 인해 반려동물 효과를 확신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Herzog, 2011). 이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자의 부주의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반려동물을 상실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 충격과 상실감으로 우울증과 불면증 등의 심리적 공황 상태를 경험하기도 하고 식욕부진, 현기증 같은 증상으로 건강이 악화하기도 한다(Katcher & Rosenberg, 1982). 더불어 반려동물 보호자가 가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강한 애착은 보호자의 건강하지 못한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며(김세영, 박형인, 2017), 반려동물에 대한 집착은

대인관계를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이경엽, 2017). 이처럼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관계에서도 사람 관계처럼 적절한 거리가 필요해 보이며,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주는 효과가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정서는 증가하고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감소되기 때문에(김세영, 윤가현, 2014) 자기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여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정, 2022). 그리고 최근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지 않더라도 동물카페, 유기동물 보호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동물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강규민, 2019; 장우리, 2021). 하지만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 증가와 반려동물의 보편화에 비해 인간-동물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반려동물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일찍 자리 잡은 외국에서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Sandra & Aaron, 2008). 이에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수의 증가로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인간-동물 상호작용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현재 반려동물과 관련된 대인관계 연구는 미미하다. 그러나 대인관계와 관련한 그 외 연구들은 환경적 변인으로는 부모-자녀 관계(윤태교, 이지민, 2017), 가족지지(양순미, 2017), 주 양육자와의 애착(조영주, 서현지, 2018) 등이 탐색되었다. 개인적 변인으로는 자기분화(윤태교, 이지민, 2017; 이지선, 정혜정, 2016; 채경희, 2020), 자기수용과 공감능력(황예은, 이지민, 2020), 내면화된 수치심(김희정, 홍혜영, 2021)과 자기통제력(황정하, 임재호, 2020), 일상 스트레스(어유경, 2021), 정서인식명확성(송연주, 채예진, 이수빈, 김영근,

2021; 정소현, 양난미, 2018), 정서표현양가성(안성경, 정여주, 2016; 이효원, 정남운, 2021) 등이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인관계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주로 대인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거나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면서 개인적 요인에 주로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개인적 특성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의 개인적 요인과 그러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문수백, 2009). 이에 본 연구에는 대인관계를 예측, 설명, 통제하는 환경적 변인으로 인간-동물 상호작용을 선정하고 개인적 변인으로서는 최근 대인관계 연구의 특징을 반영하여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선정하여 이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한모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간과 반려동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대 인간의 상호작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영아의 경우는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할 수 없으므로 자기 의사를 알리기 위해 주 양육자와 상호작용을 한다(유금순, 2019).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아동이 자신의 다양한 감정과 요구를 자신만의 신호를 통해 상호작용을 할 때 주 양육자는 이를 민감하게 감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 애착 및 관계의 질에 문제를 일으킨다(유금순, 2019).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은 학생의 학업과 발전에 긍정적 도움을 준다(오중근, 2018). 이처럼 인간 대 인간의 상호작용은 상대가 행동한 것과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목적과 의도를 점검하거나 대체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간과 반려동물의 상호작용은 사람에게 대한 신뢰를 높여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낸다(Beetz, Uvnäs-Moberg, Julius, & Kotrschal,

2012). 따라서 사람 간 상호작용은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지만 인간-동물 상호작용은 타인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볼 수 있다.

인간-동물 상호작용이란 반려동물에 대한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반려동물과 서로 작용하고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마상진, 2004).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은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윤성민, 2016). 반려동물 보호자가 심리적인 스트레스 상황일 때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교감이 이루어지면 불안에 관한 심리적·행동적 수치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인다(김옥진, 임세란, 2013). 그 외 반려동물과 다양한 신체접촉 등의 질적인 상호작용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자는 대인관계 신뢰성과 사회적인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yde, Kurdek, & Larson, 1983). 이를 통해 반려동물은 소유만 하기보다는 보호자와 함께 교감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반려동물 보호자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간-동물 상호작용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독립적인 생활로 인한 정서문제를 해결하고 대인관계 문제를 조력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김옥진, 2017). 대인관계란 타인 지향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원만한 의사소통 속에서 문제의 상황을 해소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정태영, 2011). 일반 성인들에게 주변 사람들과 교류의 경험을 물었을 때, 반려동물과 함께하면서 이웃과 교류가 많아졌고, 이를 통해 필요한 사회적 지지도 제공받는다고 했다(Wood et al., 2015). 반려동물이 사람을 대신할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관계의 결핍이나 제한된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에게 사람을 통해 얻을 수 없는 무언가는 반려동물을 통해 얻고 있는 건 사실일 것이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은 편견 없이 보호자를 수용해주기 때문에 반려동물 보호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부되거나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불편한 감정을 낮춰주기도 한다(Fawcett & Gullone, 2001).

특히, 대인관계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활동은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분노를 낮춰주고(Fred et al, 2014), 낯선 상황에서 사람들 사이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Gueguen & Ciccotti, 2008). 이처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반려동물 보호자의 사회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상호작용이 충분히 연습 된다면 반려동물 보호자의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겪는 좋은 경험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연민과 공감 능력을 촉진 시키기며(Furnham, McManus, & Scott, 2003; Serpell, 2004), 반려동물에 대한 공감은 사람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주요한 요소이기도 하다(한아람, 2017). 공감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의 감정을 나의 감정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우미혜, 2016). 높은 공감능력이 있는 사람은 반려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동물 복지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아람, 2017). 이렇듯 반려동물 보호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함께하는 즐거움 즉 인간-동물 상호작용은 공감능력을 높여주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정서적 공감을 할 수 있고(서강오, 2012), 이러한 공감능력은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기본 조건이기도 하다(구자경, 2006). 반려동물 보호자는 반려동물과 인사하기, 훈련 시키기 등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다(Olbrich, 1995). 또한 안아주기, 같이 산책하기, 먹이 주기 등의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Endenburg, 1992). 이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이러한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어(서유현, 2002) 원활한 대인관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반려

동물 보호자는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에서 교감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상대의 정서와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능력이 높아져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인간-동물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사람보다 짧은 반려동물의 수명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한다. 반려동물과의 사별은 사람과의 사별과 유사하므로 사랑하는 연인과 자식을 잃는 것과 같은 슬픔을 경험한다(Weissman, 1991).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반려동물 상실의 슬픔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므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슬픔에 대해서는 냉소적으로 비판하기도 한다(김현정, 2022). 그러므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는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자기위로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기위로능력이란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차분하고 편안하며, 자기 스스로 감정을 달래는 방식과 타인이 위로해주는 방식 모두를 수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Glassman, 1989). 자기위로능력이 높은 사람은 기분이 나쁘거나 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감정을 편안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위로능력이 낮은 사람은 경직되고 제한된 대처전략을 가지고 있어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Glassman, 1989). 반려동물 보호자의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더라도 자신과 익숙하고 우호적인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항상성 및 안정감이 유지되어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이 된다(김옥진, 2015).

한편 공감능력과 자기위로능력의 선행연구에서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대해 수용받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태도를 경험할수록 자기위로능력이 높았다(조지혜, 2020). 자기위로능력은 자신을 위로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은 증가시키고 부정적 정서의 수준은 완화해(이중현, 박기환, 2018)

부정적인 사건들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는 내적자원으로(이 샘, 최한나, 2012) 대인관계에서는 필수 요소일 것이다. 그러므로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은 공감능력을 향상해 불안이나 긴장된 상황에서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자기위로능력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어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동물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과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불안과 긴장으로(방정선, 2013).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적응하는 것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조소연, 2019).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높으면 생활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하정희, 조한익, 2006)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문제를 촉발해 삶의 질을 저하하기도 한다(박준호, 서영석, 2010).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나타나는 문제, 목줄을 매지 않아 발생한 사람들과의 마찰, 물림 사고, 반려동물의 짖음으로 발생하는 소음 관련 민원 등의 문제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대한민국 경찰청, 2022). 이처럼 대인관계의 특성과 욕구는 각자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므로 상호작용에 있어 여러 형태의 오해와 갈등이 초래되는데 이것이 바로 대인관계 스트레스이다(백종철, 2008).

이때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을 하면 타인에 대해 친절함과 감정이입이 증가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각종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한다(Henderson, 1997).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의 환경에서는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Wells & Perrine, 2001). 반면,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으면 생활 적응을 잘하지 못하지만(하정희, 조한익, 2006), 공감적 이해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고(송지희, 2017), 스트레스를 낮추는

역할을 자기위로능력이 하고 있다(최가은, 2019). 즉, 반려동물과의 상호 작용으로 공감능력이 높으면 타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스트레스를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동물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과 자기위로능력,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예상되는 인간-동물 상호작용이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통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인간과 동물 관계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특징과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이 유사함(신정인, 강영결, 2016)을 근거로 본 연구는 인간-동물 상호작용과 대인관계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자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인간-동물 상호작용을 환경적 변인으로 설정하고, 반려동물 보호자의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개인적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반려동물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이 보호자의 부정적 정성의 완화와 타인의 신뢰감을 높여 긍정적인 삶의 변화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밝혀 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고,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 대인관계 스트레스, 대인관계의 구조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5.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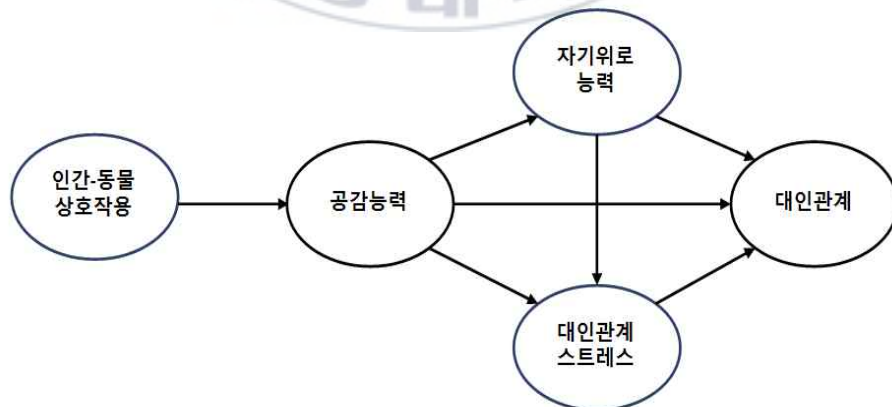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3. 용어의 정의

가. 인간-동물 상호작용

인간-동물 상호작용이란 반려동물에 대한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반려동물과 서로 작용하고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마상진, 2004).

본 연구에서의 인간-동물 상호작용은 Poresky 와 Hendrix(1987)가 개발한 반려동물 결합 척도(The Companion Animal Bonding Scale)를 마상진(200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인간-반려동물 상호작용 척도로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나. 공감능력

공감능력이란 관찰된 타인의 경험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의미한다(Davis, 1980).

본 연구에서의 공감능력은 Davis(1980)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Scale)를 허순향, 남윤주, 남승규(2019)가 타당화한 공감능력 척도(Empathy Capability Scale)로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다. 자기위로능력

자기위로능력이란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차분하고 편안하며, 자기 스스로 감정을 달래는 방식과 타인이 위로해주는 방식 모두를 수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Glassman, 1989).

본 연구에서의 자기위로능력은 Glassman(1989)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위로의 수용 능력 척도(Self-Report Measure of Soothing Receptivity Scale)를 박효서(1999)가 타당화하여 임경진(2017)의 연구에서 자기위로능력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라. 대인관계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에 있어 갈등과 오해 등의 부정적인 상황에서 기인하는 부정적 정서를 의미한다 (백종철, 2008).

본 연구에서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Cooper와 Marshall(1978), Matterson과 Ivancevich(1982)가 개발하고, 백종철(2008)이 타당화하여 정지혜(2021) 연구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마. 대인관계

대인관계란 타인 지향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원만한 의사소통 속에서 문제의 상황을 해소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정태영, 2011).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인관계는 Warner(2007)가 개발한 대인관계능력 척도(Interpersonal Competenc Scale)를 정태영(2011)의 연구에서 대인관계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 공감능력, 대인관계 스트레스, 자기위로능력 및 대인관계의 개념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변인 간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간-동물 상호작용

인간-동물 상호작용이란 반려동물에 대한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반려동물과 서로 작용하고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마상진, 2004).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개와 고양이는 사람과 함께 협력적인 관계로 생활하며 지내고,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감각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Fawcett & Gullone, 2001). 이렇듯 사람과 반려동물의 유대(human & animal bond; HAB)는 오랜 역사를 같이 해왔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키우는 반려동물로부터 위로받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반려동물이 주는 치유의 효과를 자신도 모르게 누려왔다(김옥진, 2012).

최근에는 인간과 동물의 유대(HAB)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이는 사람과 동물 간의 상호 교감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사람은 동물로부터 많은 이로운 반응을 얻을 수 있다(김옥진, 2012). 그중 사회관계의 결핍이나 제한된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개개인에게 동료애나 애정 등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반려동물에게 얻을 수 있다(김옥진, 임세라, 2013). 반려동물 보호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산책을 통해 운동하는

신체적 효과와 친근한 대상과 함께 있음으로써 심리적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이란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러한 옥시토신은 인간과 반려동물의 유대감에서 증가한다. 옥시토신의 증가는 반려동물 자체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사랑받는 어떤 환경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용백, 2016). 사람과 동물의 유대는 동물과 사람 간이 끈끈한 감정을 말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정신적, 신체적 효과를 인식해 행복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다(김옥진, 2015).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은 가족의 구성원이자 반려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전에는 가족으로부터 심리적, 정서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반려동물에게서도 받고 있다(Walsh, 2009). 또한 사람이 반려동물과 상호작용하며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하고 동물과 함께 지내는 것이 사람의 신체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확인되면서 이를 반려동물 효과(Pet effect)라고 정의하였다(Allen, 2003).

반려동물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 피난처 역할이 되기도 하고,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에게 어려움을 털어놓거나 반려동물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마은주, 2022). 사람들은 타인 앞에서보다 자기의 반려동물에게 더 편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McNicholas & Collis, 2000).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는 동물과의 심리적 상호작용을 통해 반려동물이 자신을 공감하고 지지하며, 수용하고 있다는 정서적 안정을 경험하게 되고 유대를 넘어 애착을 형성한다는 것이다(Chandler, Portrie-Bethke, Minton, Fernando, & O’Callaghan, 2010).

반려동물을 통해 즐거움과 정서적인 안정감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최은정, 2018).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

증가로 반려동물에 대한 의미 부여가 예전과 달라지면서 새로운 용어가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반려족,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보살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을 펫팸족,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 아이 없이 반려동물만 기르는 맞벌이 부부를 딩펫족이라 부른다(윤성민, 2016). 이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와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은 크게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언어적인 상호작용으로 반려동물과 인사하기, 대화하기, 훈련하기가 있다. 반려동물과의 대화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사회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Olbrich, 1995). 또한 반려동물을 훈련하면서 반려동물 보호자와 반려동물과의 유대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든다(신남식, 1998). 아동은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과 친절함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Henderson, 1997). 이처럼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반려동물 보호자는 반려동물로부터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감소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으로는 안아주기, 쓰다듬어주기, 산책, 함께 잠자기, 반려동물의 집 치워주기, 먹이 주기, 목욕시켜주기, 눈 맞추기 등이 있다.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에서 접촉 위안을 느낄 수 있는데 접촉 위안은 사람이 반려동물을 쓰다듬으면서 정신적인 안정감을 느낀다(Endenburg, 1992). 아이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쓰다듬고, 만지고, 안아주고, 흉내를 내면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지각하고 표현하면서 정서조절을 배우게 된다(이경희, 2015).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면서 반려동물 보호자의 규칙적인 생활과 체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것은 낯선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도와준다(문영희,

김효정, 2011). 이처럼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는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이 정서조절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인간-동물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선행연구가 그리 많지는 않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경험과 상호작용이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서 반려동물 경험이 초등학생의 감성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주상, 2018).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집단은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수준이 더 높았다. 또한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적 지지가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나라, 최현정, 2021). 성인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이 정서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을 오래 할수록 정서지능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은정, 2018).

선행연구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는 반려동물과 따뜻한 신체접촉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고, 반려동물로 인해 가족 간에 대화 주제가 생기면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반려동물과 교감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은 사람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하여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공감능력

공감능력이란 관찰된 타인의 경험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의미한다(Davis, 1980).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의 내적 경험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느낄 수 있으며 상대방과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상호작용의 요인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며 자신과 타인이 분리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자신 생각을 적절히 표현하고 반응하는 것이다(천우영, 2016). 공감능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경희, 2017). 공감은 타인의 감정, 고통, 열정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개인적 의지로 생겨나는 정서라고 할 수 있다(이선영, 2016). 이런 맥락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공감능력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데 반려동물의 입장도 생각하게 되어 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겪는 좋은 경험은 연민과 공감을 촉진 시키기도 한다(Furnham et al., 2003; Serpell, 2004). 이러한 반려동물과의 공감은 사람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주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한아람, 2017).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은 정서적 공감능력과 관련이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태도가 애정적일수록 보호자의 공감능력은 높다(한아람, 2016). 공감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동물에 대한 공감능력도 높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Angantyr, Eklund, & Hansen, 2011; Taylor, 2007). 반려동물과의 활동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필수적인 공감능력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신남식, 1998). 따라서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공감능력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능력에 대한 정의는 초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상담자적 입장에서 공감능력은 타인의 주관적 심리상태가 마치 자신 이 느끼는 것처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다(Roger, 1957). 발달적인 입장에서 공감능력의 발달은 아동의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탈중심적인 사고로 전환되는 7세 이후에 형성된다. 중심화는 대상이나 사물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작용을 말하며, 자기중심주의는 대인관계에서 주의의 초점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Piaget & Inhelder, 1969). 반면 탈중심화는 상대방의 심리적인 상태와 주변의 여건, 상황 등으로 초점의 대상을 다양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혜연, 2009). 즉, 공감능력은 자기중심적 입장에서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을 통해 타인의 감정이 습득되는 보다 타인 지향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반려동물 보호자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다 보니 자기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하다. 이러한 관대함으로 인해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안 치워서 나타나는 문제, 목줄을 매지 않아 발생한 사람들과의 마찰, 물림 사고, 반려동물의 짖음으로 발생하는 소음 관련 민원이 지목되고 있다(대한민국 경찰청, 2022).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높은 공감능력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어(서유현, 2002)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공감능력이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보다 상호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공감능력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연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반려동물과 정서적 관계를 맺는 것이 개인의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초등생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과 공감능력, 친 사회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이 초등생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아람, 2016). 심리적 발달과 반려동물과 관련된 연구로는 어린 시절 반려동물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공감능력, 사회적 협동, 지능 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Melson, 2001). 따라서 반려동물은 공감능력을 높이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감능력을 매개로 다양한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반려동물 보호자의 공감능력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태도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려동물 보호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 보호자는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공감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자기위로능력

자기위로능력이란 불안이나 긴장과 같은 유쾌하지 못한 정서를 일으키는 상황을 대면했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내적 자원을 사용하여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Moser, 1991). 자기위로능력은 기분이 나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차분하게 하고 편안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런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는 법과 타인의 위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Glassman, 1989).

반려동물 보호자에게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자기 위로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유를 살펴보면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다르게 많은 변화를 보인다. 예전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반려동물을 서열 정리라는 개념으로 처벌로 다스렸다면 요즘은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을 스트레스 표현으로 인식하여 행동 속에 감춰져 있는 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정한아, 2020). 이처럼 시대적 흐름이 반려동물을 동물 그 자체가 아닌, 가족이자 친구처럼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반려동물의 실종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상실감과 고통, 슬픔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장애인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을 경험하게 된다(모호정, 2015).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반려동물 상실의 슬픔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므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슬픔에 대해서는 냉소적으로 비판하기도 한다(김현정, 2022).

이때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자기위로능력이 부정 정서를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해 편안한 상태로 유지하고, 자신을 위로하거나 타인의 위로를 받아들여 감정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Glassman, 1989; Moser, 1991). 이러한 자기위로능력은 높을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문제 중심 대처방식, 사회적지지 추구를 사용하여 해결한다(박효서, 1999). 특히, 자기위로능력이 높을수록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자신을 위로하고 타인의 돌봄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자기위로능력은 불안감 감소 및 정서적 평형을 유지하게 도와주고 있다(허수진, 홍정순, 2018). 하지만 자기위로능력이 낮을수록 부정 정서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Glassman, 1989). 그러므로 자기위로능력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필요한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진다.

자기위로능력은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신체적으로 위로하기이다. 이는 부정적인 기분을 경험할 때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접촉을 통해 위로받는 걸 의미한다. 둘째는 스스로 위로하기이다. 이는 개인이 자신을 위로하고 달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자기 노출이다. 이는 부정적인 기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고,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으며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은 회복력이다. 이는 부정적인 기분을 얼마나 빨리 극복하는지를 의미한다(Glassman, 1989).

이러한 자기위로능력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위로능력은 개인의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의 감소에 효과적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자기위로능력이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면 자기위로능력이 높을수록 SNS중독경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은진, 2019). 이는 청소년의 SNS중독경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내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기위로능력에 의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위로능력의 의미가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위로능력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살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 의하면,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살사고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기위로능력이 높을수록 자살사고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선화, 2013). 그리고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자기위로능력이 감소하였고(권 영, 2018), 고등학생의 공격성과 부모의 성취압력의 연구에서는 자기위로 능력과 공격성은 부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봉석, 2011).

따라서 자기위로능력은 일상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스스로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서 긍정적인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심리내적 기제임을 알 수 있다.



4. 대인관계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에 있어 갈등과 오해 등의 부정적인 상황에서 기인하는 부정적 정서를 의미한다(백중철, 2008). 스트레스는 생활 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 사회적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역할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이연숙, 2017). 사람은 정신적, 생리적 방어 메커니즘을 결합하여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응하게 된다. 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이고, 그 관계의 양상은 사건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 때문에 좌우된다(신경희, 김초복, 2013).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즉, 대인관계를 통해 개인의 안정과 만족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에, 사람은 타인을 떠나서 혼자서 생존할 수가 없다(Sullivan, 1953).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대인관계의 특성과 욕구는 각자의 방식대로 다양하게 표출되므로 상호작용에 있어 여러 형태의 갈등과 오해가 초래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대인관계 스트레스라고 한다(허용재, 2013). 이를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개인이 맺는 관계의 특성에 따라 수직적 관계와 평등, 동등성 관계가 있다(김기범, 1996).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는 불안이나 우울을 일으킨다. 이에 따라 심리적 으로나, 신체적으로 문제를 촉발해 삶의 질을 저하하기도 한다(박준호, 2009).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높으면 생활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하정희, 조한익, 2006), 수면장애나 우울감, 자살 충동을 더 많이 느끼게 한다(심용출, 나동석, 2012; 정선희, 박 종, 2013). 그리고 과도한 음주나 인터넷 중독과 같은 부적응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김남선, 이규은, 2012; 김정열, 이성진, 2007). 이처럼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반려동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다. 그중 산책 중에 반려동물 보호자가 자기 반려동물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생기는 문제, 야외에서 반려동물의 목줄을 매지 않아 동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거나 이로 인한 마찰, 개 물림 사고, 반려동물의 잦은 짖음 또는 하울링으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 등이 있다(대한민국 경찰청, 2022).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보호자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감과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을 하면 타인에 대한 친절함과 감정이입이 증가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각종 스트레스가 해소된다(Henderson, 1997). 또한 외부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인하여 해소가 된다(이형석 외, 2017). 반려동물과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의 환경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Wells & Perrine, 2001).

반려동물과 관련된 대인관계 스트레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반려동물을 소유하거나, 사육하는 동물로 생각할 때는 생활 만족도와 주관적 스트레스가 높았다. 반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경우 생활 만족도는 높고, 주관적 스트레스는 낮았다(김지현, 2020). 이처럼 반려동물을 사육한다고 인식할 때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인식하고 있을 때 주관적 스트레스에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반려동물이 가족처럼 인식되면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감소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표현되는 말과 행동이 여러 형태의 오해와 갈등을 초래하여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여러 심리 내적 기제 요인에 의해 해소되기도 하지만 가족처럼 느끼는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을 할 때도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대인관계

대인관계란 타인 지향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원만한 의사소통 속에서 문제의 상황을 해소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정태영, 2011). 대인관계는 사람이 처한 물리적인 환경보다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기여한다(Sullivan, 1953). 즉 대인관계가 조화롭고 만족스러울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지만 갈등이 있을 때는 부적응과 좌절을 경험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불안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수용 받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이라면 경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편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김주연, 성태훈, 김지혜, 신민영, 2014).

반려동물은 사회관계의 결핍이나 제한된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애정과 동료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반려동물에게 얻을 수 있다(김옥진, 마영남, 2013). 설문을 통해 일반 성인들에게 주변 사람들과 교류의 경험을 물었을 때,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이웃과 교류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필요한 사회적 지지도 제공받는다고 한다(Wood et al., 2015). 반려동물은 편견과 조건없이 수용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부되거나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불편한 감정도 낮춰줄 수 있다(Fawcett & Gullone, 2001). 특히, 낯선 상황에서 사람들 사이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Gueguen & Ciccotti, 2008).

좋은 대인관계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고 타인으로부터 이해와 공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정체감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관계이다(서봉연, 유영분, 강길례, 2001).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는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관계를

시도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아동기에 경험하게 되는 대인관계의 만족은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는다. 또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체감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치며 후속되는 대인관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김진옥, 2010).

대인관계의 기본요소로 타인 이해, 자기이해 및 공감적 이해, 언어·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말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다(김기정, 이정희, 1999). 대인관계는 두 사람이 정기적으로 접촉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상호의존적인 행동을 통해 형성되는 정서적인 결속이나 연계 및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김문수, 2004). 친밀한 대인관계는 개인의 발달과정에 따라서 각기 다른 기능으로 개인의 발달과 안정에 영향을 미치며, 구체적으로 부모·자녀, 친구, 애정 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박은미, 1999).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 등이 있다(Lapsley & Edgerton, 2002). 우울함에 취약한 개인은 대인관계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박송이, 채규만, 2012), 개인의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 표현 양식, 수치심, 열등감, 좌절감,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민선, 채규만, 2012).

선행연구에서 대인관계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반려동물과 함께 놀이하기, 강아지 훈련 시키기 등을 했을 때 얼굴에는 웃음과 미소가 지어져 어두운 표정이 밝아졌다고 한다(김옥진, 마영남, 2013). 또한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분노를 낮추고,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red et al, 2014). 그리고 청소년에게 반려동물을 분양한 결과 청소년의 대인관계나 사회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김성천, 노혜련, 1998). 이처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보호자의 사회성을 향상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반려동물은 현대인들이 대인관계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종합해서 정리하며, 좋은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타인에게 자기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고 타인으로부터 이해와 공감을 받을 때 유지가 된다. 이러한 좋은 대인관계 유지를 위한 도움은 반려동물과 함께함으로써 사회관계의 결핍이나 제한된 대인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 공감능력, 대인관계 스트레스, 자기위로능력 및 대인관계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상호작용과 공감능력 변인 관계

상호작용과 공감능력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정애, 2018). 초등생을 대상으로 인간-동물 상호작용에 따른 공감능력을 살펴봤을 때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아동이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아람, 2016).

만4-5세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유아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공감능력은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유아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애, 2018). 이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감능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유아의 공감능력이 높으며, 이렇게 높은 공감능력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높여주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나. 공감능력과 변인들과의 관계

(1) 공감능력과 자기위로능력 간의 관계

공감능력과 자기위로능력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자기위로능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오미경, 정남운, 2021).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반응과 자기위로능력은 정적상관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부모의 공감과 자기위로능력이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대해 수용 받고 이해해주는 태도를 경험할수록 자기위로능력이 높아지고, 자기위로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조지혜, 2020).

여고생을 대상으로 여고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수용-거부적 양육 태도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능력과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공감능력과 자기위로능력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고채영, 2018). 이는 부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가 공감능력과 자기위로능력으로 인해 대인불안을 낮춰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공감과 자기위로능력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부모로부터 공감받았다고 지각하는 대학생일수록 자기위로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오미경, 정남운, 2021). 부모의 공감적 양육 태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 및 교육 장면에서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타인의 지지에 지각하는 특성에 개입하여 자기위로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겠다. 자기위로능력의 결핍과 부족을 호소하는 내담자의 내면에는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과 타인을 지지의 대상으로서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표상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내적 표상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공감적인 대인관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2)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간의 관계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송지희, 2017).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교사의 공감능력과 직무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공감능력과 직무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공감적 이해 수준이 높은 교사는 원장의 지도력 및 행정적 지원, 업무 과부하, 동료와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를 적게 받음을 알 수 있다(송지희, 2017). 이는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고, 직무스트레스를 높게 느끼는 어린이집 교사일수록 공감능력이 낮다는 의미이다.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의 공감능력은 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공감은 부모 및 가정환경요인, 학업요인, 교사와 학교 환경요인, 스트레스 척도와 부적 상관이 있다. 반면에 정서적 공감은 친구와 개인요인, 주변 환경 및 사회요인, 학업요인, 스트레스 척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배성경, 2012). 이는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중 개인적 고통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혜선, 이기령, 2015).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간호대상자의 불행이나 고통을 경험할 때, 마치자기 일처럼 경험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간의 관계

공감능력과 대인관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정은진, 2020). 영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눈치, 공감능력, 대인관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은진, 2020). 이는 눈치, 공감능력, 대인관계는 서로 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다양한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유아교육 기관에서 영유아 교사의 심리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 공감능력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허토실, 2017). 이는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수용이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기수용이 되면서 공감능력이 높으면 대인관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직구성원의 공감 능력이 대인관계 조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감능력이 높으면 대인관계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연정, 2019). 이는 조직구성원들이 상대방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봐주며, 동등한 태도를 가지고 행동할 때 대인관계를 조화롭게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불행한 일에 함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상황을 침착하게 바라보고 대응하는 조직구성원일수록 대인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장품 판매원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이 공감능력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공감능력을 거쳐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희, 정갑연, 2019). 이는 화장품 판매원이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의 감정과 행동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대인관계능력을 향상해 서비스 접점에서의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함을 의미한다.

다. 자기위로능력과 변인들과의 관계

(1) 자기위로능력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간의 관계

자기위로능력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다. 하지만 자기위로능력과 직무스트레스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위로능력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성혜영, 성승연, 2019). 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의 자아분화정도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고 자아분화가 자기위로능력을 매개로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아분화와 직무스트레스 수준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이 완전매개 하였다(성혜영, 성승연, 2019). 이는 자아분화와 직무스트레스 관계에서 자아분화가 높아질수록 타인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자신 스스로 격려하거나 용기를 북돋는 능력이 높아진다.

(2) 자기위로능력과 대인관계 간의 관계

현재까지 자기위로능력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고생을 대상으로 자기위로능력과 정서적 고통 감내력을 통하여 대인불안에 어떤 영향을 주는 연구에서는 자기위로능력과 정서적 고통 감내력을 통해 대인불안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화정, 이지연, 2016). 이러한 결과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점점 많은 학생이 정서적으로 힘들어지면 신체적 아픔을 동반하고 힘든 상황을 회피하려 하고 있으며 또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성취에 비해 열망은 크기 때문에 자존감은 낮아지고, 수치심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학생들의 정서는 부적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적 자원이 자기위로능력임을 알 수 있다.

라.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간의 관계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대인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어유경, 2021).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 스트레스가 개인의 친밀한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때 정서표현의 정도가 어떤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했다. 그 결과,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부부 또는 연인관계 등 친밀한 대인관계에서의 만족도, 정서표현의 정도는 모두 유의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어유경, 2021). 이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대인관계에서 만족도는 낮아지고 반대로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는 높음을 의미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업 스트레스가 상승하면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서 경쟁, 갈등 등의 부정적 측면이 증가한다(임경빈, 이봉건, 2020). 이는 학교 스트레스 자극이 청소년의 대인관계 문제를 예언하는 중요한 환경적 변인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 자기성찰지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인관계능력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서의석, 김미숙, 2020). 이는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게 되면 대인관계에 있어도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린이집에서는 원장, 부모, 원아, 동료 등 다양한 사회적 대상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은 대인관계능력에 중요한 요건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살펴보았을 때, 반려동물 보호자가 인간-동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예측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환경적 변인과 개인적 변인 간의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간-동물 상호작용과 관련 있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반려동물 보호자의 환경적 변인으로 인간-동물 상호작용을 선정하고, 개인 내적 변인으로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선정하였다. 인간-동물 상호작용이 영향을 주는 종속변인으로는 대인관계를 선정하여 변인 간의 인과적 관련성 및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III. 방 법

이 장에서 내용은 연구문제 검증을 위한 연구대상, 측정도구, 자료수집 및 절차, 자료 분석 순으로 기술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소재한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2022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3주간에 걸쳐 구글 폼을 이용한 설문과 온라인 업체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설문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본 연구의 취지와 더불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인지했는지 여부 확인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설문을 종료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5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중 본인 동의가 없거나, 응답 내용이 무응답 및 불성실한 답변과 미비한 13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54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547)

	구 분	사례수(명)	백분율(%)
성별	남	259	47
	여	288	53
지역	서울·경기·인천	245	44.8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남)	144	26.4
	충청권(대전, 충청도)	74	13.5
	전라권(광주, 전라도)	62	11.3
	제주도·강원도	22	4.0
연령	20대	122	22.3
	30대	151	27.6
	40대	151	27.6
	50대	80	14.6
	60대이상	43	7.9
주거 형태	1인 가구	102	18.6
	부부	99	18.1
	가족과 거주	346	63.3
반려동물 종류	개	316	57.9
	고양이	166	30.3
	개+고양이	45	8.2
	기타	20	3.6
	(햄스터, 고슴도치, 토끼, 기니피그 등)		
키운 기간	2년 미만	75	13.7
	2년 이상-4년 미만	118	21.6
	4년 이상-6년 미만	101	18.5
	6년 이상-8년 미만	82	15.0
	8년 이상-10년 미만	44	8.0
	10년 이상	127	23.2
상호작용 하는 시간	1시간 미만	35	6.4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128	23.4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39	25.4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88	16.1
	4시간 이상	157	28.7
	전 체		100

표 1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 참여한 성별 분포를 보면 총 547명 중 남자가 259명(47%), 여자가 288명(53%)으로 여자의 참여 비율이 좀 더 높았다. 연령대는 20대 122명(22.3%), 30대 151명(27.1%), 40대 151명(27.1%), 50대 80명(16.6), 60대 이상이 43명(7.9%)으로 30-40대가 전체 비율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구조에 따른 분포는 1인 가구 102명(18.6%), 부부 99명(18.1%), 그 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구조는 349명(63.3%)이었다. 반려동물의 종류로는 개 316명(57.9%), 고양이 166명(30.3%), 그 외 개와 고양이를 함께 양육하는 사람은 45명(8.2%), 개와 고양이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20명(3.6%)이다. 즉, 개와 고양이가 전체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은 전체 비율의 80% 이상이 자기 반려동물과 2년 이상 함께 살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상호작용을 한 시간은 참여자의 90% 이상이 반려동물과 최소 1시간 이상 상호작용하고 있다.

2. 측정도구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 대인관계 스트레스, 대인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측정도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인간-동물 상호작용 척도

본 연구에서는 인간-동물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Poresky 와 Henrix(1987)가 개발한 반려동물 결합 척도(The Companion Animal Bonding Scale)를 마상진(200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인간-반려동물 상호작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9문항의 단일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동물 간의 상호작용이 높음을 의미한다.

Poresky 와 Hendrix (1987)연구의 Cronbach's α 는 .77이었고, 마상진(2004) 연구의 Cronbach's α 는 .92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인간-동물 상호작용의 하위요인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Cronbach's α)
상호작용	1, 2, 3, 4, 5, 6, 7, 8, 9	9	.87
전 체		9	

나. 공감능력 척도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0)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Scale)를 허순향 외(2019)가 타당화한 공감능력 척도(Empathy Capability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인지적 공감(12문항), 정서적 공감(12문항), 행동적 공감(12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Davis(1980)연구의 Cronbach's α 는 .61-.81이었고, 허순향 외(2019) 연구의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인지적 공감 .87, 정서적 공감 .80, 행동적 공감 .70이고, 전체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인지적 공감 .82, 정서적 공감 .82, 행동적 공감 .91이고, 전체 Cronbach's α 는 .85였다. 공감능력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공감능력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Cronbach's α)
인지적공감	1 - 12	12	.82
정서적공감	13 - 24	12	.82
행동적공감	25 - 36	12	.91
전 체		36	.85

다. 자기위로능력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기위로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Glassman(1989)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위로의 수용능력 척도(Self-Report Measure of Soothing Receptivity Scale)를 박효서(1999)가 타당화하여 임경진(2017)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위로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2문항으로 회복력(13문항), 신체적 위로하기(10문항), 자기노출(10문항), 스스로 위로하기(9문항)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식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위로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과 신체 접촉을 통해 위로받는다는 신체적 위로하기 변인은 한국의 정서와 차이가 있어 자기위로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의 근거에 의해 삭제하였다(고소희, 2000; 서은진, 2019).

임경진(2017) 연구의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회복력 .91, 신체적 위로하기 .80, 자기노출 .79, 스스로 위로하기 .73고, 전체 Cronbach's α 는 .92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자기위로능력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자기위로능력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Cronbach's α)
회복력	1*, 4*, 6*, 11*, 18*, 19*, 20*, 25*, 26*, 27*, 28*, 29*, 30*	13	.93
자기노출	2*, 5, 7*, 9, 10*, 12*, 15, 17*, 21, 23*	10	.75
스스로 위로하기	3, 8, 13, 14*, 16*, 22*, 24, 31, 32*	9	.72
전 체		32	.91

* 역 채점 문항임.

라. 대인관계 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Cooper와 Marshall (1978), Matterson과 Ivancevich(1982)가 개발하고, 백종철(2008)이 타당화 하여 정지혜(2021) 연구에서 사용한 대인관계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윗사람과의 관계(5문항), 동등한 관계(5문항), 아랫사람과의 관계(5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정지혜(2021)의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윗사람과의 관계 .88, 동등한 관계 .89, 아랫사람과의 관계 .81이고, 전체 Chronbach's α 는 .92였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윗사람과의 관계 .89, 동등한 관계 .87, 아랫사람과의 관계 .81이고, 전체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Cronbach's α)
윗사람과의 관계	1-5	5	.89
동등한 관계	6-10	5	.87
아랫사람과의 관계	11-15	5	.81
전 체		15	.92

마. 대인관계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Warner(2007)가 개발한 대인관계능력 척도(Interpersonal Competenc Scale)를 정태영(2011) 연구에서 사용한 대인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타인기질(5문항), 의사소통(5문항), 관계촉진(5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정태영(2011)연구의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타인기질 .82, 의사소통 .88, 관계촉진 .8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타인기질 .71, 의사소통 .70, 관계촉진 .84이고, 전체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대인관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대인관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Cronbach's α)
타인기질	1-5	5	.71
의사소통	6-10	5	.70
관계촉진	11-15	5	.84
전 체		15	.88

3.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예비조사 후 본조사가 실시되었다. 먼저 예비 조사는 구글 폼(<https://forms.gle/QajszxKh9bYN8ZR3A>)을 작성하여 2022년 9월 0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설문은 온라인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 총 7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설문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본 연구의 취지와 더불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인지했는지 여부 확인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설문을 종료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 시간은 대략 10분-15분 내외이다. 회수한 61부의 설문지 중 무성의하게 응답한 11명의 자료를 제외한 50명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50부를 SPSS 21.0을 이용하여 지표변수의 문항 내적 합치도를 추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추정하였고 잠재변인의 구성개념 신뢰도는 CFA 기반 신뢰도 추정 방법(Raykov, 2001)으로 추정하였다. 신뢰도 추정한 결과 .85-.92로 신뢰도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본 조사는 온라인 업체를 통해 2022년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온라인 설문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이상의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총 560부의 설문지를 의뢰하였으며 예비조사와 같은 조건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한 대상만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온라인 업체를 통해서 회수된 최종 연구 자료는 560부의 설문지 중 무성의하게 응답한 13명의 자료를 제외한 547명의 자료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대인관계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1.0과 AMOS 2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를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범주별 빈도와 구성 비율을 알아보았다.

셋째, 연구변인의 기술 통계치를 추정하기 위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으며, 연구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넷째, 인간-동물 상호작용과 관련 변인 간의 구조모형 검증을 위하여 AMOS 21.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의 2단계의 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Steiger-Lind의 90% 신뢰구간의 절대적합도 지수(RMSEA),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ucker 지수 (Tucker-Lewis Index: TLI)와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유의수준 .05에서 모수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간접효과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hantom 변인을 이용한 간접효과 추정모형을 설정한 다음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IV. 결 과

이 장에서는 인간-동물 상호작용,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대인관계의 기술통계, 공선성 통계, 변인 간 상관분석, 모형검증, 최종 연구모형의 직·간접효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수집한 자료의 일반적인 정상성과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의 정상성을 가정할 수 있는 수치이다. 왜도는 자료의 분포가 좌우대칭을 잘 이루어 정규성이 유지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단봉분포에서 긴 꼬리가 왼쪽에 있으면 음의 왜도, 그 반대로 오른쪽에 있으면 양의 왜도를 가진다. 첨도는 점수 비율이 정규분포곡선에서 중간이나 끝부분에 뾰족하게 몰려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양의 값을 가지면 정상분포보다 더 뾰족한 모양이 된다(성태제, 시기자, 2014). 왜도 $<\pm 2.0$, 첨도 $<\pm 7.0$ 범위에 있으면 정상성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한다(Curran, West, & Finch, 1996).

표 7에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제시하였다.

표 7.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N=547)

측정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인간-동물 상호작용	3.95	.66	-.59	.31
공감능력	3.32	.46	.16	1.12
인지적 공감	3.61	.61	-.32	.82
정서적 공감	3.23	.49	.29	.95
행동적 공감	3.28	.64	-.20	.42
자기위로능력	4.51	.58	.53	1.04
회복력	4.71	.80	-.20	.31
자기노출	4.32	.72	.47	.54
스스로 위로하기	4.49	.70	.47	.62
대인관계 스트레스	2.33	.50	-.27	.08
윗사람과의 관계	2.32	.63	-.08	.19
동등한 관계	2.22	.61	-.15	-.36
아랫사람과의 관계	2.37	.62	-.26	-.02
대인관계	3.51	.50	-.15	1.04
타인기질	3.61	.56	-.37	.80
의사소통	3.55	.56	-.01	.23
관계촉진	3.37	.65	-.22	.81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왜도 값은 $-.59 \sim .53$ 로 분포되었고 첨도 값은 $-.02 \sim 1.12$ 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의 왜도 $< \pm 2.0$, 첨도 $< \pm 7.0$ 범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다.

2. 측정변인의 공선성 통계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외생변수들의 공차와 VIF를 측정한다. 공차는 공차 한계(tolerance)를 의미하고, VIF는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의미한다. VIF는 공차와 역수 관계이다. VIF는 1-∞(1에서 무한대)의 값을 가지는데, 10 미만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노경섭, 2016).

이를 측정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측정변인의 공차와 VIF값 (N=547)

측정변인	공차	VIF
인간-동물 상호작용	.85	1.18
공감능력	.72	1.40
인지적 공감	.70	1.40
정서적 공감	.66	1.51
행동적 공감	.52	1.93
자기위로능력	.90	1.12
회복력	.69	1.46
자기노출	.58	1.73
스스로 위로하기	.64	1.56
대인관계 스트레스	.74	1.36
윗사람과의 관계	.61	1.65
동등한 관계	.58	1.74
아랫사람과의 관계	.69	1.44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VIF 값은 1.12-1.93으로 모두 기준치인 10 미만으로 나타나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

3. 문항 꾸러미 제작(Item Parceling)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Russe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잠재변인들에 대해 문항 꾸러미를 제작하였다. 문항 꾸러미는 보통 구조방정식 모형의 틀에서 관심 있는 구인(construct)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측정모형을 설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 꾸러미 제작에는 이론이나 내용적 근거에 기반하여 문항 꾸러미를 구성하는 방법과 측정 문항이 많을 경우, 여러 개의 개별 문항을 결합하여 문항 꾸러미를 만들어 결합 된 문항들의 합 또는 평균값을 사용함으로써 측정문항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Kishton & Widaman, 1994).

본 연구에서의 인간-동물 상호작용은 단일요인으로 문항 꾸러미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제작하였다. 문항 꾸러미 제작은 먼저 요인 수를 1로 두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부하량의 절대값에 따라 순서를 매긴 후, 가장 큰 부하량을 지닌 문항부터 순서대로 할당하고 모든 꾸러미가 잠재변수에 대해 유사한 요인부하량을 갖도록 하였다. 인간-동물 상호 작용은 상호_1과 상호_2로 구성하였다.

4.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대인관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측정변인 간의 상관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에 제시한 각 측정변인 중 하위요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인지적 공감과 윗사람과 관계, 정서적 공감과 동등한 관계 간의 관계, 회복력과 아랫사람과 관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하위변인들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p < .05$).

측정변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반려동물 보호자의 상호작용 경우, 공감능력($r = .37, p < .01$), 자기위로능력($r = .26, p < .01$), 대인관계($r = .27, p < .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대인관계 스트레스($r = -.18, p < .01$)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공감능력의 경우, 자기위로능력($r = .47, p < .01$)과 대인관계($r = .65, p < .01$)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대인관계 스트레스($r = -.22, p < .01$)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기위로능력의 경우 대인관계 스트레스($r = -.30, p < .01$)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대인관계($r = .53, p < .01$)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대인관계($r = -.25, p < .01$)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9.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N=547)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상호작용	1																			
2 상호_1	.93**	1																		
3 상호_2	.67**	.35**	1																	
4 공감능력 전체	.37**	.33**	.26**	1																
5 인지적공감	.33**	.30**	.25**	.61**	1															
6 정서적공감	.25**	.23**	.18**	.79**	.26**	1														
7 행동적공감	.31**	.28**	.22**	.90**	.42**	.53**	1													
8 자기위로능력전체	.26**	.27**	.12**	.47**	.30**	.27**	.49**	1												
9 회복력	.26**	.26**	.13**	.52**	.37**	.36**	.48**	.78**	1											
10 자기노출	.14**	.16**	.03**	.28**	.09*	.10*	.38**	.82**	.44**	1										
11 스스로 위로하기	.22**	.22**	.11**	.27**	.22**	.15**	.26**	.73**	.39**	.48**	1									
12 대인스트레스전체	-.18**	-.17**	-.11**	-.22**	-.11*	-.13**	-.25**	-.30**	-.18**	-.25**	-.29**	1								
13 위사람 관계	-.12**	-.11**	-.08**	-.16**	.05	-.13**	-.17**	-.15**	-.10*	-.09*	-.18**	.81**	1							
14 동등한 관계	-.15**	-.16**	-.05**	-.20**	-.12**	-.07	-.25**	-.41**	-.26**	-.36**	-.35**	.80**	.46**	1						
15 아랫사람 관계	-.16**	-.13**	-.14**	-.18**	-.09*	-.13**	-.18**	-.17**	-.07	-.16**	-.18**	.82**	.49**	.51**	1					
16 대인관계 전체	.27**	.25**	.19**	.65**	.47**	.40**	.63**	.53**	.57**	.34**	.31**	-.25**	-.14**	-.31**	-.14**	1				
17 타인기질	.23**	.23**	.10*	.45**	.36**	.28**	.42**	.40**	.46**	.25**	.20**	-.20**	-.09*	-.27**	-.12**	.80**	1			
18 의사소통	.24**	.22**	.17**	.59**	.44**	.37**	.56**	.49**	.51**	.31**	.30**	-.24**	-.15**	-.30**	-.13**	.88**	.61**	1		
19 관계촉진	.23**	.19**	.19**	.59**	.40**	.37**	.59**	.46**	.48**	.29**	.28**	-.20**	-.16**	-.23**	-.10*	.85**	.47**	.66**	1	

* $p < .05$, ** $p < .01$

5. 측정모형 검증

가. 측정모형의 적합도 평가

구조방정식의 2단계의 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본 연구의 잠재변인이 측정변인에 의해 적합하게 측정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CMIN)	df	p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모형	331.99	67	.000	.90	.92	.08(.07-.09)
기준				>.90	>.90	<.08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χ^2 과 TLI, CFI, RMSEA를 측정하였다. χ^2 검정은 사례 수에 민감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측정모형 적합도 검증하기 위해 사례 수와 모형의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TLI, CFI, RMSEA를 활용하였다.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CFI, TLI는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RMSEA의 경우에는 .05 미만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 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mediocre fit),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로 간주한다(홍세희, 2000).

표 10에 제시된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TLI=.90, CFI=.92로 적합도가 좋았으며, RMSEA =.08(90% 신뢰구간)로 적합도가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모수 추정치, 비표준화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C.R. 값 기준)과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수의 설명력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값을 기준으로 측정모형의 분석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고, 측정변인의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11. 측정모형의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 모수 추정치 (N=547)

잠재변인	측정변인	B	S.E.	C.R.	β	SMC
인간_동물 상호작용	상호_1	.84	.14	5.83***	.71	.50
	상호_2	1			.50	.25
공감능력	정서적공감	1			.58	.34
	인지적공감	1.20	.12	10.14***	.55	.30
	행동적공감	1.90	.15	12.74***	.83	.69
자기위로 능력	회복력	1.31	.11	11.72***	.73	.53
	자기노출	1			.62	.38
	스스로위로하기	.84	.09	9.65***	.53	.28
대인관계 스트레스	위사람관계	.86	.08	11.25***	.63	.40
	동등한관계	1			.77	.59
	아랫사람관계	.90	.08	11.6***	.68	.46
	타인기질	.78	.05	16.16***	.67	.45
대인관계	대인의사소통	1			.85	.72
	관계촉진	1.06	.06	19.29***	.78	.61

*** $p < .001$

표 11에 제시된 측정모형의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잠재변인들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표준화 계수(β) 또한 .50~.85로 나타나 모두 .4이상으로 양호하였다(문수백,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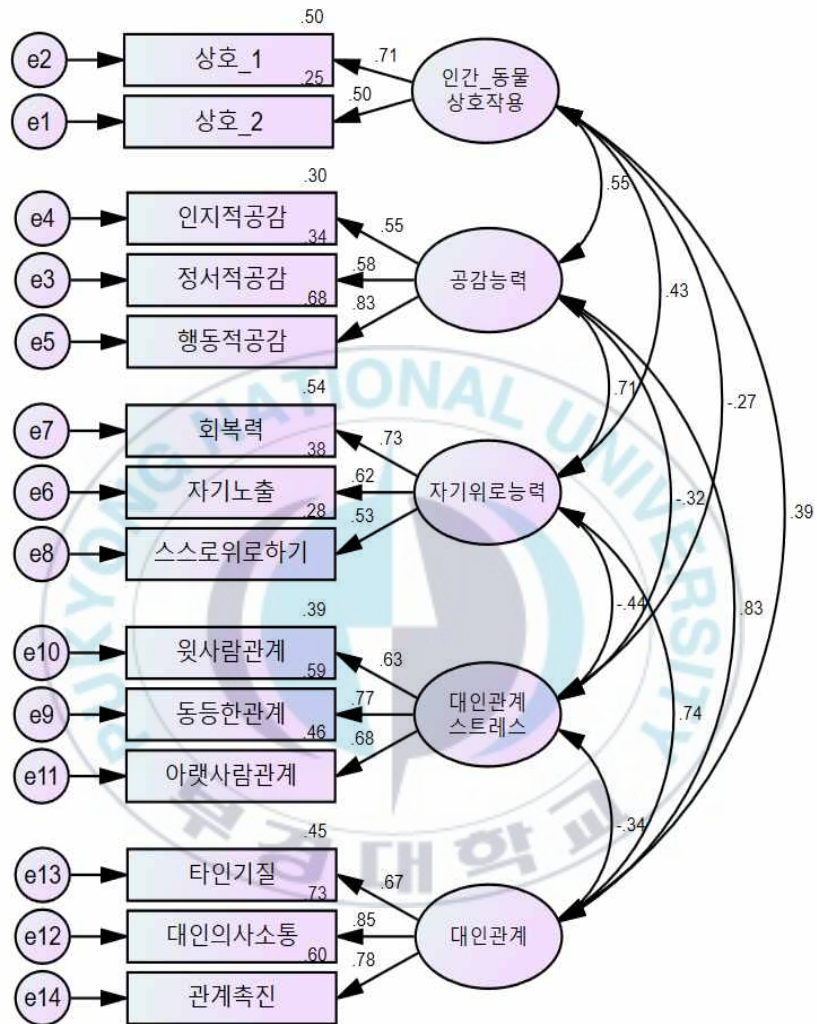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변인의 표준화 요인 부하량

나. 수렴타당성 검증

수렴타당성은 하나의 잠재변인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측정항목들의 상관 정도를 나타내며 CR이 .70 이상이고 AVE가 .50 이상이면 수렴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Fornell과 Larcker(1981)이 제시한 공식을 이용하여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 측정모형의 CR과 AVE 검증결과

측정변인	CR	AVE
인간-동물 상호작용	.82	.61
공감능력	.88	.66
자기위로능력	.83	.63
대인관계 스트레스	.89	.68
대인관계	.87	.69

표 12에 의하면 모든 변수의 CR 값이 .82-.89로 .70 이상을 나타냈으며, AVE 값 역시 .61-.69로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기준값을 충족하였다.

6.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구조모형 검증을 하였다.

가. 초기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초기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χ^2 과 TLI, CFI, RMSEA를 측정하였고 표 13과 같다.

표 13. 초기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CMIN)	<i>df</i>	<i>p</i>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모형	338.25	70	.000	.90	.92	.08(.07-.09)
기준				>.90	>.90	<.08

그 결과는 표 13에서 TLI=.90, CFI=.92로 적합도가 좋았으며, RMSEA=.08 (90% 신뢰구간)로 적합도가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연구모형의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모수 추정치는 표 14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표 14. 초기 연구모형의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 모수 추정치 (N=547)

변인	인	B	S.E.	C.R.	β
인간-동물 상호작용	→ 공감능력	.30	.05	5.93***	.54
	→ 자기위로능력	.86	.11	8.03***	.71
공감능력	→ 대인관계스트레스	-.40	.08	-5.53***	-.33
	→ 대인관계	.68	.10	6.80***	.60
자기위로능력	→ 대인관계스트레스	-.34	.09	-3.97***	-.43
	→ 대인관계	.25	.07	3.56***	.30
대인관계스트레스	→ 대인관계	-.01	.04	-.19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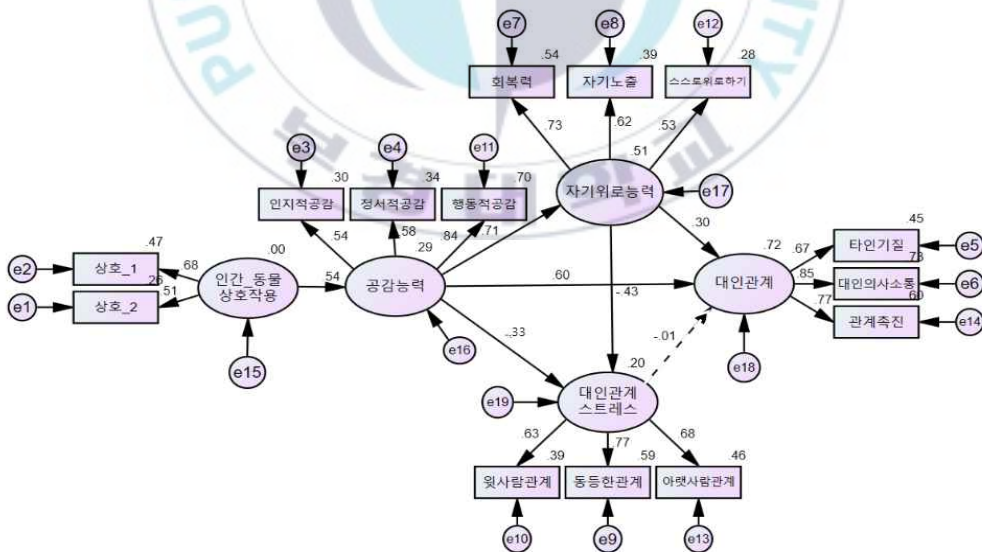


그림 3. 초기 연구모형의 모수치 추정 결과(표준화계수)

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계수는 실선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계수는 점선으로 표시.

표 14에 제시된 초기 연구모형의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초기 연구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를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은 공감능력($\beta=.54$,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반려동물 보호자의 공감능력은 자기위로능력($\beta=.71$, $p<.001$), 대인관계 스트레스($\beta=-.33$, $p<.001$), 대인관계($\beta=.60$,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반려동물 보호자의 자기위로능력은 대인관계 스트레스($\beta=-.43$, $p<.001$)와 대인관계($\beta=.31$,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반려동물 보호자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대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변인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지만,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수준 .05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나. 최종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최종 연구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15에 제시하였고, 최종 연구모형의 모수치 추정 결과는 그림 4에 제시하였다.

표15. 최종 연구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N=547)

변인	인	B	S.E.	C.R.	β	
인간-동물 상호작용	→	공감능력	.30	.05	5.93***	.54
공감능력	→	자기위로능력	.86	.11	8.03***	.71
		대인관계스트레스	-.40	.07	-5.39***	-.34
		대인관계	.68	.10	6.81***	.60
자기위로능력	→	대인관계스트레스	-.34	.09	-3.97***	-.43
		대인관계	.25	.07	3.93***	.3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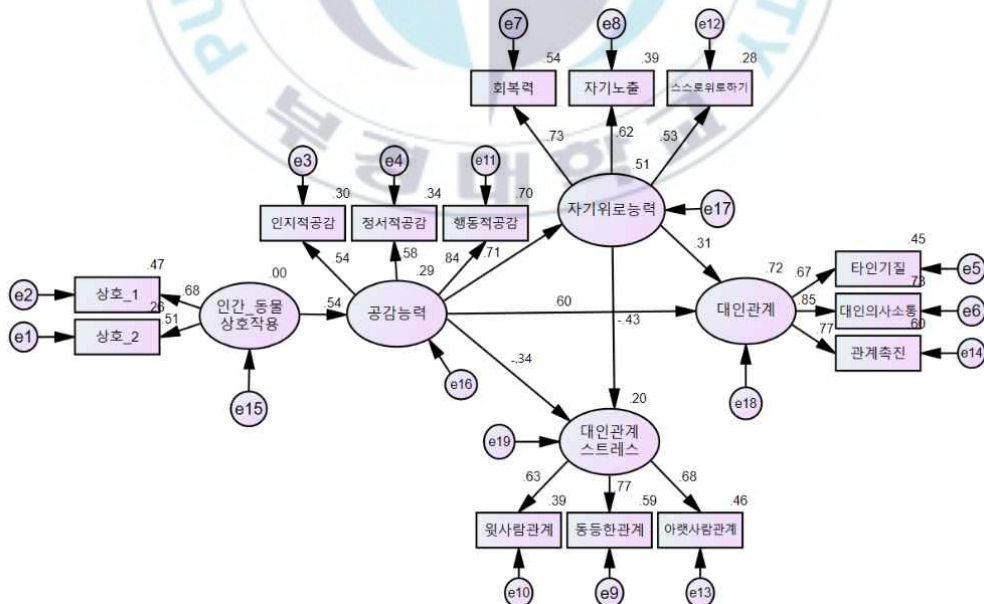


그림 4. 최종 연구모형의 모수치 추정 결과(표준화계수)

표 15에서 최종 연구모형의 변인 간의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는 첫째,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은 공감능력($\beta=.54$,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을 했을 때 공감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반려동물 보호자의 공감능력은 자기위로능력($\beta=.71$, $p<.001$), 대인관계 스트레스($\beta=-.34$, $p<.001$), 대인관계($\beta=.60$,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자기위로능력은 높고,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낮으며, 대인관계는 잘 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반려동물 보호자의 자기위로능력은 대인관계 스트레스($\beta=-.43$, $p<.001$)와 대인관계($\beta=.31$,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자기위로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낮으며, 대인관계는 잘 되는 것을 의미한다.

7. 최종 연구모형의 직·간접효과 분석

가. 최종 연구모형의 총효과, 직·간접효과 분석결과

최종 연구모형의 총효과, 직·간접효과의 내용은 표 16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총효과($\beta=.37, p<.001$)와 직접효과($\beta=.37, p<.001$)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감능력이 자기위로능력($\beta=.47, p<.001$), 대인관계 스트레스($\beta=-.22, p<.001$), 대인관계($\beta=.65, p<.001$)에 총효과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자기위로능력이 대인관계 스트레스($\beta=-.25, p<.001$), 대인관계($\beta=.28, p<.001$)에 총효과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대인관계($\beta=-.05, p=.115$) 총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최종 연구모형의 총효과 직·간접효과 분석

변인	표준화계수(β)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간-동물상호작용 →	공감능력	.37***	.37***	
	자기위로능력	.47***	.47***	
공감능력 →	대인관계스트레스	-.22***	-.10***	-.12***
	대인관계	.65***	.51***	.14***
자기위로능력 →	대인관계스트레스	-.25***	-.25***	
	대인관계	.28***	.28***	
대인관계스트레스 →	대인관계	-.05	-.05	

*** $p < .001$

나. 최종 연구모형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간접효과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AMOS에서 Phantom 변수를 이용하여 간접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간접효과 검증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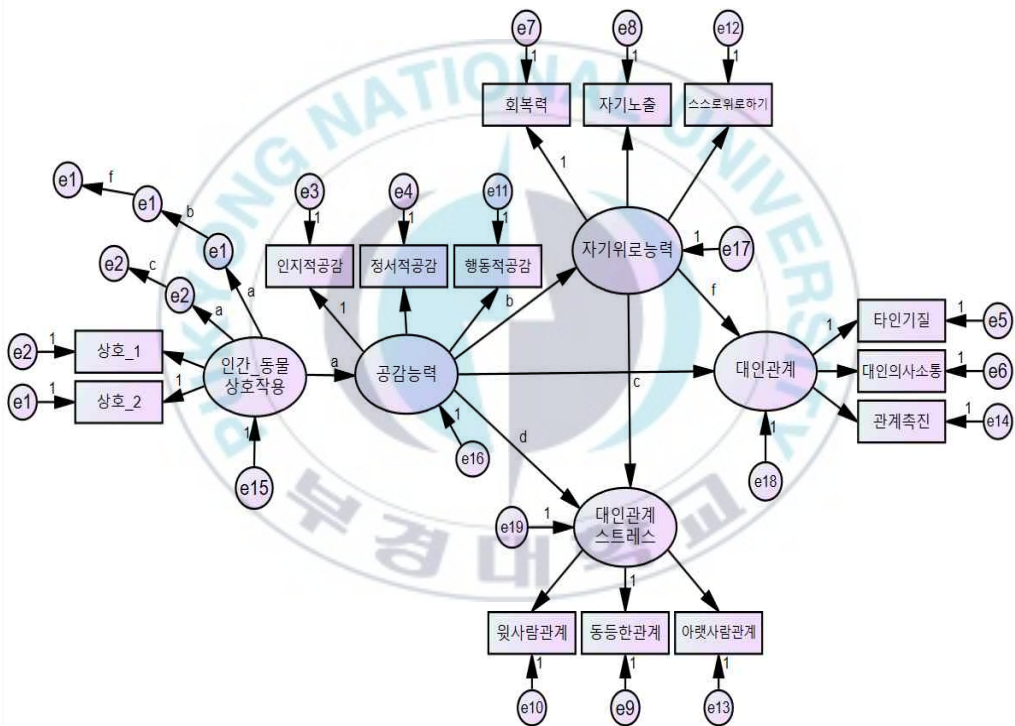


그림 5. Phantom변인을 이용한 간접효과 검증모형

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method) 검증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 대인관계 스트레스, 자기위로능력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의 매개효과 검증하는 방법인 sobel 검증이 가질 수 있는 정상성 가정의 위배 가능성에서 벗어나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를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해서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을 제시하고, 그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자세한 내용은 표 17에 제시하였다.

표 17. 최종 연구모형의 간접효과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변 인	추정치	β	S.E	95%신뢰구간 (Bias-corrected)	
				lower	upper
인간-동물상호작용→공감능력→대인관계	.50	.55	.04	.42	.58
인간-동물상호작용→공감능력→자기위로능력 →대인관계	.28	.24	.04	.20	.36
인간-동물상호작용→공감능력→대인관계 스트레스→대인관계	-.11	-.12	.06	-.21	.01
인간-동물상호작용→공감능력→자기위로능력 →대인관계스트레스→대인관계	-.05	-.05	.04	-.12	.01

주. 부트스트랩 표본 수는 5,000번.

표 17에서 제시된 최종 연구모형의 간접효과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 보호자는 인간-동물 상호작용이 공감능력을 지나 대인관계로 가는 간접효과는 $\beta=.55$, 95% Bias-corrected CI=.42~.58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인간-동물 상호작용이 공감능력을 지나 대인관계에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인간-동물 상호작용이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을 지나 대인관계로 가는 간접효과는 $\beta=.24$, 95% Bias-corrected CI=.20~.36으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인간-동물 상호작용이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을 지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감능력과 자기위로능력은 인간-동물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인간-동물 상호작용이 공감능력,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지나 대인관계로 가는 간접효과는 $\beta=-.12$, 95% Bias-corrected CI=-.21~.01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동물 상호작용이 공감능력,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지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매개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인간-동물 상호작용이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지나 대인관계로 가는 간접효과는 $\beta=-.05$, 95% Bias-corrected CI= -.12~.01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인간-동물 상호작용이 잘 되면 공감능력과 자기위로능력을 높여 대인관계가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자기위로능력이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대인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매개효과가 없음을 의미한다.

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 대인관계 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이 공감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동물 상호작용이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에 영향을 미친 연구(한아람, 2016)와 일치하며, 인간-동물 상호작용이 감정이입 수준을 높이게 한다(최은정, 2018)는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동물 상호작용이 높으면 공감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려동물을 소유만 하기보다는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을 했을 때 더 많은 치유적인 측면의 효과가 있다는 것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 또는 시간을 보냄으로써 심리적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옥시토신이란 호르몬이 분비된다. 옥시토신은 반려동물 보호자와 반려동물 간의 오랜 유대감에 의해 증가한다(김용백, 2016). 한편 반려동물과 친밀한 교감을 나눴을 때 옥시토신이 분비되며 여러 교감 중 특히 반려동물과 눈 맞춤을 할 때 가장 많이 분비된다(Vincent, 1955). 이러한 옥시토신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할 때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김용백, 2016).

사람과 동물의 유대는 사람과 동물 간에 끈끈한 감정을 말하는데 이러한 감정은 사람과 동물 간의 상호작용에서 생긴다(김옥진, 2015). 반려동물 보호자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안전하게 표현하고(Olbrich, 1995), 사람에 대한 신뢰를 높여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끌어낸다(Beetz et al., 2012). 이는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서로 교감을 하면서 편안함과 정서적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강오, 2012).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겪는 좋은 경험은 연민과 공감을 촉진시킨다(Furnham et al., 2003; Serpell, 2004). 이러한 반려동물과의 공감은 사람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주요한 요소이며(한아람, 2017), 반려동물과의 활동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필수적인 공감능력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신남식, 1998). 따라서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공감능력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이 잘 되면 자신의 감정 및 타인의 감정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또한 반려동물 보호자가 늘 함께하고 있는 자기 반려동물을 통해서 얻어지고 있는 즐거움과 치유적인 효과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되어 공감능력을 높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은 대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높다(정은진, 2020)는 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여고생을 대상으로 자기위로능력이 높으면 대인관계불안을 줄여준다(강화정, 이지연, 2016)는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간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대인관계에서 만족도는 낮고 반대로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다(어유경, 2021)는 연구와는 일부만 일치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공감능력과 자기위로능력이 높으면 대인관계가 잘되지만,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대인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반려동물 보호자가 대인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자기의 생각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공감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심리적으로 불편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스스로 차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자기위로능력 또한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공감능력과 자기위로능력은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조력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호자가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심리적인 불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불편감이 대인관계에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은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교사-영유아 상호작용과 감정노동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황정아, 2021),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높다(정은진, 2020)는 연구에서 경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인간-동물 상호작용은 공감능력을 거쳐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때 공감능력은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의미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동물 상호작용이 높으면 공감능력을 높여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pet과 family의 합성어로 ‘펫팸족’이라고 부른다(박문각, 2016). 민법(가족법)에서도 반려동물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식처럼 기르던 반려동물을 ‘누가 데려갈 것인가’하는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예도 있다(장보람, 2019).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실질적인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가족 이상으로 생각하다 보니 자기 반려동물에게는 좀 더 호의적으로 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분쟁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개 물림 사고나, 반려동물의 배설

물을 안 치워서 나타나는 문제, 목줄을 매지 않아 발생한 사람들과의 마찰, 반려동물의 짖음과 하울링으로 발생하는 소음 관련 민원이 지목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청, 2022). 이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지켜야 하는 펫티켓 즉, 반려동물을 뜻하는 'pet'과 예절을 뜻하는 '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하는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아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모든 반려 가구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볼 수 없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호자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을 이해한다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인에게 일어나는 정서에 지각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서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면 이러한 타인에 대한 이해가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 보호자가 인간-동물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에서 공감능력은 아주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과 자기위로능력이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인간-동물 상호작용이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에 영향을 미친 연구(한아람, 2016), 공감능력과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고채영, 2018), 자기위로능력이 대인불안을 줄여준다는 연구(강화정, 이지연, 2016)에서 경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상호작용은 공감능력과 자기위로능력을 거쳐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때 공감능력과 자기위로능력은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의미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동물 상호작용이 높으면 공감능력과 자기위로능력을 높여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이미 앞선 내용에서 인간-동물 상호작용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따라서 공감능력과 자기위로능력이 매개효과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반려

동물 보호자에게 공감능력은 상대의 부정 정서가 이해되어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자기위로능력은 높여 부정적 정서의 수준은 완화해(이중헌, 박기환, 2018)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도와준다.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공감능력과 자기위로능력이 발휘될 시점은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반려동물과 이별했을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 반려동물은 친구, 가족 등과 같은 존재이며, 반려동물의 양육을 통해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 또한 주위와의 상호작용, 의사소통, 대인관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친다(Moria, 2007). 하지만 사람의 평균수명보다 반려동물의 수명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짧으므로 대부분의 반려동물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반려동물의 죽음은 사람에게 슬픔, 이별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기도 한다(Charles, 2003).

안락사로 반려동물을 상실한 성인의 경우 슬픔과 섭식과 수면장애, 일상 생활에서의 무기력, 죄책감 등을 경험한다. 한편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는 사고의 반복적 재현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묘효정, 2015).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은 무의식적으로 반려동물을 찾는 행동, 반려동물의 목걸이, 옷, 밥그릇 등과 같은 반려동물의 유품을 보관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웠던 보호자에게 반려동물의 상실은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상실의 애도는 개인적인 경험인 동시에 개인이 속한 사회의 관습과 문화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 경험이다. 그러므로 상실 후 가까운 사람들과 상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Neimeyer, Prigerson, & Davies, 2002). 또한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숨기는 것보다 타인에게 개방하고 적절한 반응을 접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오현자, 김교헌, 2009).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상실했을 때 슬픔에 대한 인식은 냉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김현정, 2022). 부정적 반응에는 반려동물 보호자에 대해 비난하거나 그러한 상황을 수용해 주지 못하는 경우, 낙인찍기 등이 있다. 외상 경험을 타인에게 개방했을 때 부정적 반응을 받으면 자기에 대한 비난이 증가하고 사건에 관한 감정을 회피, 억압하게 된다(Ullman, 2000). 이처럼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 상실을 인간과의 사별과 비교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얻게 될 때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쌓아 높은 좋은 경험이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공감능력을 촉진한다. 이렇게 촉진된 공감 능력은 비반려인들이 자신의 슬픔을 잘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타인을 비난하기보다는 상대의 정서와 감정을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이해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감정을 달래며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인간-동물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에서 공감능력과 자기위로능력은 중요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경유했을 때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인간-동물 상호작용이 공감에 영향을 미친 연구(한아람, 2016),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송지희, 2017), 높은 일상 스트레스가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어유경, 2021)에서 경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상호작용은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거쳐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일부만 비슷한 맥락이다. 반면 선행연구와 상반된 부분은 일상 스트레스가 높으면 대인관계는 낮아진다는 점이다(어유경, 2021).

이렇게 선행연구와 상반된 원인을 반려동물 보호자와 반려동물과의 관계, 반려동물 보호자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들과의 관계, 척도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반려동물 보호자와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찾아 보면, 반려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28.1%는 키우는 반려동물을 양육 포기 또는 과양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문제행동(29.4%), 이사 및 취업 등의 환경변화(20.5%), 많은 지출 발생(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 2021). 이때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으로는 분리불안, 과도한 짖음, 가족에 대한 공격성 등이 있다(Blackwell, Twells, Seawiringht, & Casey, 2008). 이처럼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문제행동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로도 힘들 때도 있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 보호자가 아끼는 물건을 물어 뜯거나, 배변 실수를 하거나, 보호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짖음을 할 때는 반려동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진다.

하지만 요즘은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을 스트레스 표현으로 인식하여 행동 속에 감춰져 있는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정한아, 2020). 그러므로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자신의 감정 및 타인의 감정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공감능력을 높인다. 공감능력이 높은 반려동물 보호자일수록 동물의 복지와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가 되면서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는 덜 받게 된다. 이때 반려동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게 되는 보호자는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낮아진 스트레스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일상생활에서 대인관계를 더 유연하게 해주는 역할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반려동물 보호자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들과의 관계에서 찾아보면, 전문가들은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 간 갈등에 대해 반려동물 산업의 규모는 늘어났지만, 그에 반해 펫티켓 등 반려동물 문화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수정, 2017). 또한 길고양이들이 기물을 파손시키거나 쓰레기봉투 훼손, 발정기 소음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김한준, 2022). 하지만 이를 불쌍히 여긴 ‘캣맘’들이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줌으로 이웃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김봉수, 2017). 이때 반려동물 보호자가 다양하게 표현되는 타인의 오해와 갈등을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면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입장이 충분히 공감되어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일상생활에서 관계를 맺는 대인관계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척도의 관점에서 원인을 살펴보면,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 차이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척도가 같은 잠재변인이지만 구성되는 하위 측정변인 차이에서 기인된 것일 수도 있고, 연구의 대상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은 공감능력에 영향을 주어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낮춰줄 수는 있지만 대인관계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은 매개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경유하게 되면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로 순으로 연구된 선행연구는 없지만 인간-동물 상호작용이 공감에 영향을 미치고(한아람, 2016), 공감능력은 자기위로능력을 거쳐서 매개효과를 본 연구(고채영, 2018)와 자기위로능력을 매개로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 연구(성혜영, 성승연, 2019), 높은 일상 스트레스가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어유경, 2021)에서 경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은 선행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대인관계에 인간-동물 상호작용,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 순으로 경유하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위로능력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경유했을 때는 대인관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인간-동물 상호작용으로 반려동물이 보호자의 피난처 역할을 하기도하고(마은주, 2022), 반려동물과 함께일 때 경험하는 심리적인 현상들은 대인관계에 나타나는 특징과 유사하다(신정인, 강영결, 2016). 이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자기 반려동물과 질 좋은 상호작용이 충분히 연습 된다면 그러한 경험들이 대인관계에서도 비슷하게 표현된다는 의미이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상호작용을 잘한다고 해서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심리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면서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또한 힘들 때는 자신의 이야기를 반려동물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음으로써 마음의 상처가 치유됨을 느낄 때도 있다. 이렇게 반려동물 보호자에게는 조건 없이 수용해주는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고, 교감하면서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되면 반려동물이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공감해주고 수용해준다는 경험이 하나하나 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놓은 좋은 경험들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심리적으로 불편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는 그 불편한 감정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 이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좀 더 자신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어 현재의 대인관계보다 좀 더 친근하고 유연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시사점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 효과에 관한 연구가 서구보다는 매우 부족한 국내에서 부족했던 반려동물 효과의 심리학적 기체에 관한 연구를 시도한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은 보호자의 심리내적 요인인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에는 상승효과를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낮춰주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인간-동물 상호작용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반려동물 보호자가 좀 더 친밀감 있는 대인관계를 위해서 공감능력과 자기위로능력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반려동물 효과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임상 집단 또는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반려동물 효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제한점으로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효과 연구가 진행되어 이러한 제한점이 극복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을 매개로 하는 정신건강 증진, 관리 서비스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사점과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관계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과 키우는 사람을 비교 분석하는 기초연구가 선행된 뒤에 인간-동물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좀 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

요인으로는 윗사람, 동등한 사람,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본 척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하위요인을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척도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대인관계 스트레스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잘 알 수 있는 일상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했을 때도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 개개인의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 반려동물과 상호작용한 시간 등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될 수 있어 이를 통제한 인간-동물 상호작용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규민 (2019). '길친' 도와줄 멤버 있나요? 페이스북 통해 퍼지는 '동물사랑'.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1901131113565166>
에서 2019.01.14. 자료.
- 강윤경 (2017).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반려동물 일자리**,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71101183800980>. (2017.11.04. 자료연음)
- 강화정, 이지연 (2016). 여고생의 부정적 정서와 대인불안과의 관계: 자기위로
능력과 정서적 고통 감내력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4(2),
69-81.
- 고경희 (2017). **유아교사를 위한 공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성신
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소희 (2000). **성인애착유형이 자기위로능력과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채영 (2018). **여자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과 자기위로능력을 매개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자경 (2006). 대학의 교양강좌를 이용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와 치료적 요인 지각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7(1), 11-26.
- 권 영 (2018).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분노행동 관계에서 자기
위로능력의 조절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범 (1996).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과 내집단-외집단 구별 :문화 비
교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정, 이정희 (1999). 대학생을 위한 대인관계향상 집단상담의 효과연구. **학생생활연구**, 17, 17-37. 서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남선, 이규은 (2012). 대학생의 자기통제력과 생활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보건정보통계학회지**, 37(2), 72-88.
- 김문수 (2004).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실험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수 (2017). [애견 포비아]왜곡된 반려동물 문화...유기·학대·민폐 심각. 아시아경제. Retrieved from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2309340956352>(2017. 10. 23. 자료얻음)
- 김성천, 노혜련 (1998). 치료감호소의 만성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6(0), 1-20.
- 김세형, 박형인 (2017). 반려동물효과: 반려동물 소유와 심리적 건강 간 관계의 메타분석 연구. **사회과학연구**, 28(1), 101-115.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세형, 윤가현 (2014). 반려견, 좋은 친구의 몇가지 조건. **사회과학연구**, 25(1), 215-233.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옥진 (2012). 동물매개치료와 치료도우미 동물의 동물복지. **대한수의사회지**, 48(12), 743-747.
- 김옥진 (2015). **동물매개치료-CTAC 방법: 개를 활용한 중재활동 기법과 프로그램**. 서울: 문운당.
- 김옥진 (2017). **동물매개치료의 기법과 적용**. 서울: 형설 아카데미.
- 김옥진, 마영남 (2013). 치료도우미견을 활용한 동물매개치료가 아동의 자아 존중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6), 327-335.
- 김옥진, 임세라 (2013). **동물매개치료와 심리상담**. 서울: 동일출판사.

- 김용백 (2016). **인간과 반려견의 오랜 유대감을 행복 호르몬에서 확인하다!**.
KBS 다큐. <http://tv.naver.com/v/1215176>
- 김정열, 이성진 (2007).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2(3), 243-250.
- 김주연, 성태훈, 김지혜, 신민영 (2014).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주의력 조절의 조절효과. **인지행동치료**, 14(1), 21-37.
- 김지현 (2020). **반려동물 소유 여부와 전반적 생활만족도 및 주관적 스트레스와의 연관성 : 2017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를 이용하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옥 (2010). **대인관계향상 훈련이 초등학생의 갈등해결방식과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한준 (2022). **길고양이를 위한 스마트급식소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연 (2009).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22(4), 275-300.
- 김현정 (2022). 인간 심리와 관련된 반려동물 연구 동향 : 국내 주요 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교육연구**, 5(1), 1-17.
- 김희정, 홍혜영 (2021).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자기자비와 정신화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2(5), 275-298.
- 노경섭 (2016).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SPSS & AMOS 21**. 서울: 한빛아카데미.
- 농림축산식품부 (2021).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afra.go.kr/bbs/mafra/68/329297/artclView.do>
- 대한민국 경창철 (2022). **반려동물 펫티켓 지키기!(동물보호법)**.
<https://blog.naver.com/polinlove2/221971434963>

- 마상진 (2004). 초등학생의 애완동물 소유 및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한국 실과교육학회지**, 17(2), 191-208.
- 마은주 (2022). 30-40대 비혼여성의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관계경험 연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묘효정 (2015). 반려동물의 상실로 인한 슬픔, 펫로스 (Pet Loss) 증후군의 증상과 대처. **인간·환경·미래**, 15, 91-120.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문영희, 김호정 (2011). 반려동물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455-477.
- 박문각 (2016). **펫팸족**.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47249&cid=43667&categoryId=43667>
- 박봉석 (2011). 부모의 성취압력이 고등학생들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위로능력과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송이, 채규만 (2012). 우울취약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능동적,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2(3), 349-368.
- 박수정 (2017). **반려인 1000만 시대... 한참 뒤쳐진 '반려견 문화'**. 위키트리. Retrieved from <http://www.wikitree.co.kr/search/index.php?search=%EB%A0%A4%EC%9D%B8+1000%EB%A7%8C&x=11&y=15> (2017. 11. 20. 자료)
- 박은미 (1999). 아동기 학대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준호 (2009). 스트레스 사건에 관한 반복생각과 자기노출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125-145.

- 박준호, 서영석 (201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3), 611-629.
- 박호서 (1999). 자기위로능력이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정선 (2013).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성경 (2012). 공감능력 및 자기통제력과 아동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종철 (2008).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태도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만족을 조절변수로. 위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강오 (2012). 치료견을 활용한 동물매개치료프로그램이 ADHA 아동의 과잉행동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봉연, 유영분, 강길례 (2001). 효과적인 대인관계 노하우 프로그램집. 서울: 한국가이던스.
- 서연정 (2019). 조직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공감 능력이 대인관계 조화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유현 (2002). 유치원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은진 (2019).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의석, 김미숙 (2020). 어린이집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124, 93-116.
- 성태제, 시기자 (2014).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성혜영, 성승연 (2019). 감성노동자의 자아분화와 직무스트레스수준의 관계: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20(2), 391-413.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송연주, 채예진, 이수빈, 김영근 (2021). 대학생의 대인간 외상 경험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2(2), 159-184.
- 송지희 (2017).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이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직무 스트레스를 매개효과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희, 김초복 (2013). 대상, 공간 및 언어 인지양식에 따른 작업기억 과제 수행의 개인차.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25(4), 539-563.
- 신남식 (1998). 인간과 동물의 관계. **대한수의사회지**, 34(8), 581-586.
- 신정인, 강영결 (2016). 동물매개치료(AAT: Animal -Assisted Therapy)에 대한 이해와 상담 적용적 함의.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5(1), 191-214.
- 심용출, 나동석 (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귀인성향의 매개효과와 대학생활적응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6), 203-226.
- 심혜진 (2011). **동물매개치료 중재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성경, 정여주 (2016).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719-741.
- 양순미 (2017). 농촌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참여활동경험 수준이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분석: 청소년기 대인관계기제로 작용하는 유의미한 대상에 관한 Bowlby와 Sullivan의 관점 비교 중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8(4), 625-664.

- 어유경 (2021). 일상 스트레스가 친밀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의 조절효과. **발달지원연구**, 10(2), 1-18.
- 오미경, 정남운 (202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과 자기위로능력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3), 403-425.
- 오중근 (2018). 좋은 체육수업을 위한 교사-학생의 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6), 301-317.
- 오현자, 김교현 (2009). 가출청소년의 외상경험에 대한 자기노출이 부적 정서와 침입 경험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89-106.
- 원선화 (2013). **고등학생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미혜 (2016). **초등학교 고학년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영상매체 활용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금순 (2019). **부모자녀 상호작용치료(PCIT)의 효과연구**.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성민 (2016). **반려동물 양육동기가 반려인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주상 (2018). **초등학생의 반려동물 경험 및 상호작용이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태교, 이지민 (2017). 20대 성인 남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자기분화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4), 75-98.
- 이경엽 (2017). **사람에게 상처 받고 동물에 집착하지 않게 하죠**. 스카이 데일리,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57654에서 2017.02.11. 자료.

- 이경희 (2015). 아동인성형성에 미치는 영유아기 양육환경의 영향력. **동광 (N/A)**, 110, 79-115.
- 이나라, 최현정 (2021). 반려동물 상호작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4), 1773-1791.
- 이민선, 채규만 (2012).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의 매개 효과. **인지행동치료**, 12(1), 63-75.
- 이선영 (2016). 초등학생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적용 실행연구- 관계성 영역을 중심으로. **국제이해교육연구**, 11(2), 125-152.
- 이성은 (2022). 노인의 외로움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반려동물 소유의 조절효과.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기술논문지**, 11(4), 397-405.
- 이 샘, 최한나 (2012). 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 **인간이해**, 33(1), 123-137.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 이수희, 정갑연 (2019). 화장품 판매원의 자아탄력성이 공감능력을 통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상품학연구**, 37(6), 45-56.
- 이연숙 (2017).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진의 매개효과와 돌봄 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애 (2018).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유아 친사회적 행동 및 공감능력과의 관계 연구: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8(4), 5-23.
- 이종현, 박기환 (2018). 가족응집성과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과의 우울의 매개 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4), 503-514.
- 이지선, 정혜정 (2016).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자아분화 및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1), 99-121.

- 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묶음:원리의 이해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일반**, 35(2), 327-353.
- 이형석, 강원국, 최한울, 김소영, 박소영, 송현화, ... 김옥진 (2017).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가시간이 주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지**, 6(2), 41-50.
- 이효원, 정남운 (2021). 정서표현양가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4), 1-12.
- 임경빈, 이봉건 (2020). 학교스트레스가 청소년들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분노표현양식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1), 701-710.
- 임경진 (2017). **군 병사의 자기위로능력과 우울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평화안보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보람 (2019). **펫팸족(PetFam族)의 반려동물 양육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반려견 양육경험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우리 (2021). **반려동물 파양·유기 증가...정부 대신 '임보담' 나섰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4032300004?input=1195m> 에서 2021. 3. 15자료.
- 정소현, 양난미 (2018).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자기침묵과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9(5), 137-159.
- 정선희, 박 중 (2013).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가 수면장애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8(2), 345-353.
- 정은진 (2020). 영유아교사의 눈치, 공감능력, 대인관계 간의 개인 변인별 차이와 상관관계. **미래교육통합연구**, 1(1), 3-26.
- 정지혜 (2021). **원장과 팀티칭을 경험한 보육교사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 원장의 의사소통 유형이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태영 (2011). 기업 관리자의 평생교육 코칭리더십과 조직구성원의 문제 해결능력 및 대인관계능력간의 구조적 관계.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한아 (2020). 반려동물과의 애착에 따른 펫로스 증후군 경향성 : 성인애착의 조절효과.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선, 이기령 (2015).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9), 6044-6052.
- 조소연 (2019). 청소년의 자기수용과 타인수용의 고·저 수준에 따른 군집간의 대인관계스트레스 차이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주, 서현지 (2018). 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 원형모형: 주 양육자와의 애착 및 기본심리욕구 만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345-370.
- 조지혜 (202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이 내현적 자기에 미치는 영향: 자기위로능력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경희 (2020). 북한이탈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7), 357-369.
- 천우영 (2016). 다문화가정의 아버지 정서지능이 유아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4), 141-163.
- 최가은 (2019). 간호사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정 (2018). **성인의 반려동물 소유 및 상호작용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20). 인구총조사. <https://www.kbfg.com/kbresearch/report/reportView.do?reportId=2000160>
- 하정희, 조한익 (2006). 완벽주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기효능감과 대학생 활 적응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7(2), 595-611.
- 한아람 (2016).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2), 570-578.
- 한아람 (2017). 성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태도 및 애착과 삶의 질과의 관계. **인문사회** 21, 8(6), 1093-1108.
- 한홍율 (1994). 인간과 애완동물. **대한수의사회지**, 30(6), 330-340.
- 허수진, 홍정순 (2018). 감정노동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과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장기구독 및 이식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1), 127-155.
- 허순향, 남윤주, 남승규 (2019). 공감능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2), 109-116.
- 허용재 (2013). **호텔종사자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소진 및 직무태도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토실 (2017). **대학생의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 능력의 매개효과**.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적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예은, 이지민 (2020).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과 공감능력의 이중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 학회지**, 25(2), 3-22.

- 황원경, 손광표 (2021).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보고서. <https://www.kbfg.com/kbresearch/report/reportView.do?reportId=2000160>
- 황정아 (2021). 보육교사의 교사-영유아 상호작용과 감정노동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정아, 임재호 (2020).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통제력이 뇌졸중 환자의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10(3), 63-74.
- Allen, K. (2003). Are pets a healthy pleasure? The influence of pets on blood pressur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2(6), 236-249.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ngantyr, M., Eklund, J., & Hansen, M. E. (2011). A Comparison of Empathy for Humans and Empathy for Animals. *Anthrozoos A Multidisciplinary Journal of The Interactions of People & Animals*, 24(4), 369-377.
- Antonacopoulos, D., & Pychyl, T. (2010). An examination of the potential role of pet ownership, human social support and pet attachment in the psychological health of individual living alone. *Anthrozoös*, 23, 37-54.
- Beetz, A., Uvnäs-Moberg, K., Julius, H., & Kotrschal, K. (2012). Psychosocial and psychophysiological effects of human-animal interactions: The possible role of oxytocin. *Frontiers in Psychology*, 3(234), 1-15.
- Blackwell, E. J., Twells, C., Seawright, A., & Casey, R. A.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ning methods and the occurrence of

- behavior problems, as reported by owners, in a population of domestic dogs. *Journal of Veterinary Behavior*, 3, 207-217.
- Bonas, S., McNicholas, J., & Collis, G. M. (2000). Pets in the network of family relationships: An empirical study. In A. L. Podberscek, E. S. Paul, & J. A. Serpell, (Eds.), *Companion animals and us: Explor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and pets* (pp. 209-236).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ndler, K. C., Portrie-Bethke, T. L., Minton, B. C. A., Fernando, D. M., & O'Callaghan, D. M. (2010). Matching animal-assisted therapy techniques and intentions with counseling guiding theorie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32(4), 354-374.
- Charles, A. C. (2003). Pet Loss in Death-Related Literature for Children. *Omega Journal of Death and Dying*, 48(4), 399-414.
- Cooper, C. L., & Marshall, J. (1978). Sources of Managerial Stress and White Collar Stress. In C. L. Cooper & R. Payne (Eds.), *Stress at Work*. New York: Wiley.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88.
- Endenburg, N. (1992). Companion animal owner and their attachment towards their animals. *Siswo Publications*, 37(4), 219-224.
- Fawcett, N. R., & Gullone, E. (2001). Cute and cuddly and a whole lot

more? A call for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therapeutic benefits of human–animal interaction for children. *Behavior Change*, 18, 124–133.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 - 50. <https://doi.org/10.2307/3151312>
- Fred, V., Matthew, S., Marc, W. S., Bryan, K., James, M., Matthew, S. (2014). Practice Parameter for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53(2), 237–257.
- Furnham, A., McManus, C., & Scott, D. (2003). Personality, empathy and attitudes to animal welfare. *Anthrozoös*, 16(2), 135–146.
- Glassman, E. J. (1989). *Development of a self-report measure of soothing receptivity*. Canada : York Univ.
- Gueguen, N., & Ciccotti, S. (2008). Domestic dogs as facilitators in social interaction: An evaluation of helping and courtship behaviors. *Anthrozoos: A Multidisciplinary Journal of The Interactions of People & Animals*, 21(4), 339–349.
- Henderson, K. (1997). Beeyles, bechnuts, and behavior: *Using nature-based activities to develop social skill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 Herzog, H. (2011). The impact of pets on human health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act, fiction, or hypothesi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0(4), 236–239.
- Hyde, K. R., Kurdek, L., & Larson, P. C. (1983). Relationships between pet

- ownership and self-esteem, social sensitivity, and interpersonal trust. *Psychological Reports*, 52(1), 110-110.
- Katcher, A. H. & Rosenberg, M. A. (1982). Euthanasia and the Management of the Client's Grief. *California Veterinarian*, 36(8), 31-35.
- Kishton, J. M., & Widaman, K. F. (1994). Unidimensional versus domain representative parceling of questionnaire items: An empirical ex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4(3), 757-765.
- Lapsley, D. K., & Edgerton, J. (2002). Separation-individuation, adult attachment style, and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0(4), 484 - 492.
- Matterson, M. T. & Ivancevich, J. M. (1982). Type A and B Behavior Patterns and Self-Reported Health Symptoms and Stress: Examining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Fit.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24(8), 585-589.
- McNicholas, J. & Collis, G. M. (2000). Dogs as catalysts for social interactions: robustness of the effect.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1(1), 61-70.
- Melson, G. F. (2001). *Why the wild things are: Animals in the lives of children*. Harvard University Press.
- Moria, A. A. (2007). *Ten Tips on Coping with Pet Loss*. <http://www.pet-loss.net>(검색일: 2015.08.28.); Julie Axelrod. Grieving the Loss of a Pet.
- Moser, M. L. (1991). *Transitional objects and their relationship to self-soothing mechanisms in latency-aged children*. San Diego, CA: California

- Neimeyer, R. A., Prigerson, H. G., & Davies, B. (2002). Mourning and meaning.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6(2), 235-251.
- Olbrich, E. (1995). *The Role Companion Animal can play on the health and Quality of Life of Senior Citizen in both the Home and Institutional Setting*. Psychologisches. Institut der Universitat Erlangen.
- Piaget, J. & Inhelder, B. (1969) *The Psychology of the Child*. Basic Books, New York.
- Poresky, R. H. & Hendrix, C. (1987). The Companion Animal Bonding Scale: Internal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ity. *Psychological Reports*, 60(3), 743 - 746. <https://doi.org/10.2466/pr0.1987.60.3.743>
- Ramírez, M., & Hernández, R. (2014). Benefits of dog ownership: Comparative study of equivalent samples. *Journal of Veterinary Behavior*, 9(6), 311-315.
- Rogers, C. R.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21(2), 95-103.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 - 29.
- Sandra B. B., & Aaron R. W. (2008). The Benefits of Human - Companion Animal Interaction: A Review. *Journal of Veterinary Medical Education*, 35(4), 487-495.
- Serpell, J. A. (2004). Factors influencing human attitudes to animals and

- their welfare. *Animal Welfare*, 13(1), 145-152.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Taylor, E. W. (2007). An update of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A critical review of the empirical research (1999 - 2005).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6(2), 173-191.
- Ullman, S. E. (2000).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Reactions Questionnaire: A measure of reactions to sexual assault victim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4(3), 257-271.
- Vincent du Vigneaud. (1955). 옥시토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02064&ref=y&cid=40942&categoryId=31802>
- Walsh, F. (2009) Human-Animal Bonds II: The Role of Pets in Family Systems and Family Therapy. *Family Process*, 48(4), 481-499. <http://dx.doi.org/10.1111/j.1545-5300.2009.01297.x>
- Warner, J. (2007). *Networking and Relationship Building Profile*. HRD Press, MA.
- Weissman, M. M. (1991). Panic disorder: Impact on quality of life.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52(2), 6-8.
- Wells, M., & Perrine, R. (2001). Critters in the cube farm: Perceived psychological and organizational effects of pets in the workplace.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6(1), 81-87. <https://doi.org/10.1037/1076-8998.6.1.81>

- Wood, L., Martin, K., Christenson, H., Nathan, A., Lauritsen, C., Houghton, S., ... McCune, S. (2015). The pet factor: Companion animals as a conduit for getting to know people, friendship formation and social support. *PLoS ONE*, *10*(4), 1-17. doi: 10.1371/journal.pone.0122085
- Zasloff & Kidd, 1994
- Zasloff, R. L., & Kidd, A. H. (1994). Loneliness and pet ownership among single women. *Psychological Reports*, *75*(2), 747 - 752.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대인관계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김 명 희

부경대학교 대학원 교육컨설팅학과

지도교수 천 성 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 그리고 대인관계스트레스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상호작용이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매개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집된 547명의 반려동물 보호자 자료를 모형의 적합도 및 변인들의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이 공감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은 대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대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은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과 자기위로능력이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경유했을 때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간-동물 상호작용과 대인

관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은 매개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경유하게 되면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대인관계를 할 때 인간-동물 상호작용, 공감능력, 자기위로능력 순으로 경유하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자기위로능력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경유했을 때는 대인관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이다. 이상으로 종합하면 반려동물 보호자가 자신에게는 조건 없이 수용해주는 반려동물과 함께 상호작용이 잘되고 있으면 대인관계에의 어려움이 해소되어 관계에 대한 신뢰감이 회복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반려동물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은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대해 수용 받고 이해해주는 경험이 쌓여서 심리적으로 불편한 상황에 부닥쳐 있을 때 불편한 감정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 즉 자신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어 현재의 대인관계보다 좀 더 친근하고 유연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반려동물 효과에 관한 연구가 서구보다는 매우 부족한 국내에서 반려동물 효과의 심리학적 기제에 관한 연구를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반려동물 보호자가 좀 더 친밀감 있는 대인관계를 위해서 매개변인으로 공감능력과 자기위로능력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끝으로 어떤 매개변인에 초점을 두고 개입할 때 대인관계가 좀 더 친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려동물을 매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반려동물, 인간-동물 상호작용, 공간능력, 자기위로능력, 대인관계 스트레스, 대인관계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본 설문 참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반려동물 보호자에 관한 연구를 위한 것으로써 연구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10~15분 정도 소요될 것이며, 본 설문의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외에는 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지의 모든 문항은 맞고 틀리거나,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귀하의 응답은 본 연구에 소중한 사용될 것이오니, 평소 느끼시는 대로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연구에 도움을 주신 귀하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 09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컨설팅학과

지도교수 : 천 성 문

연구자 : 김 명 희(박사수료)

본인은 위의 내용을 잘 이해했으며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요

▣ 인간-동물 상호작용

I. 다음 문항은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평소에 나를 잘 나타내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집에서 반려동물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직접 반려동물 집을 치우거나 몸을 씻겨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반려동물을 만지고, 안아주거나 쓰다듬어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반려동물이 내 친구임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반려동물과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반려동물과 느낌이 잘 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여행할 때면 반려동물과 함께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반려동물과 산책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반려동물과 함께 잠을 잔다.	①	②	③	④	⑤

▣ 공감능력

II. 다음 문항을 읽어보시고 평소에 나를 잘 나타내는 곳에 √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그들의 처지였다면 어떻게할지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나는 대개 잠시 동안이라도 그 생각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해로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친한 사람에게(그것이 정당화 되더라도) 내 감정을 폭발하지 않는 것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나의 결정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친한 친구와 싸울 때 화가 난 감정을 참을 수 있는 것을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친구에게 화가 났을 때,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녀)가 타당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급박한 상황에서 걱정스러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어쩔 줄 몰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때때로 매우 감정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긴장되는 상황이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2	때때로 나는 곤경에 처한 타인을 보고도 많이 측은해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데이트 상대나 지인이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을 하도록 요청했을 때 “No”라고 말하는 것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친구의 합리적이지 않은 요청을 거절하는 것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친구에게 그(녀)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고 말하는 것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친구에게 맞서는 것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친구가 내가 원하지 않는 운동을 같이 하자고 할때, 친구에게 분명하게 거절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번 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8	나는 친구가 나를 무시하거나 배려하지 않을 때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좋은 영화를 볼 때, 아주 쉽게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생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때때로 나는 곤경에 처한 타인을 보고도 측은해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흥미로운 이야기나 소설을 읽으면서, 이야기속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상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연극이나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마치 극중에 나오는 한 인물이 된 듯한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흔히 동정심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흔히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될 일에 대해서도 쉽게 감동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와 친구들은 서로의 개인적인 일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친구들과 아주 터놓고 이야기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친구들과 나의 감정에 대하여 종종 대화를 통해 감정을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그 날 있었던 유쾌한 일에 대하여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주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친구들은 나에게 말하기 힘든 이성 문제에 대하여도 종종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새로운 사람에게 함께 모이거나 무엇인가를 같이 하자고 요구하거나 제안하는 것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가는 것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사람들을 처음 알게 될 때, 함께 하면 흥미롭고 유쾌한 사람이라는 걸 알리는 것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내가 알고 싶은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흥미를 느끼거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할 것을 찾거나 제안하는 것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알고 싶은 사람(혹은 테이트하고 싶은 사람)에게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 자기위로능력

IV. 다음 문항을 읽어보시고 평소에 나를 잘 나타내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항 목	전혀 그렇 지않 다	대체 로 그렇 지않 다	약간 그렇 지않 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종종 아무도 내 문제를 실제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에 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사람들은 나에게 격려해주는 것을 힘들어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내가 원한다면 위로가 되는 즐거운 추억을 떠올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종종 잠을 청함으로써 나쁜 기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친구를 만나러 가면 기분이 나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기분 나쁘게 한 것이 무엇이든지간에 기분이 나아지려면 대개 오랜 시간이 걸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내가 기분 나빠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기분이 썩 좋아지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기분 나쁘게 한 것이 무엇이든지간에 빨리 회복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를 격려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으려 나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내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때때로 나는 너무 기분 나쁜 감정에 압도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단지 순간적인 위로만을 제공할 뿐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음악을 들으면(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와 비슷한 다른 활동을 하면)기분이 나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내 스스로 격려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누군가가 나를 격려하려할 때 나는 잘 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거나 이완훈련은 나에게 위로효과를 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나는 좀처럼 내 문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나는 종종 나쁜 감정을 잊기 위해 술이나 약에 취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나는 혼자이고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나는 때때로 다른 공상을 함으로써 나쁜 감정에 빠져 나오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나는 내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와라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나는 혼자 있는 것이 견디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나는 대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나는 내 고민거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나는 때때로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나는 때때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나는 스스로에게 상처주는 행동을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나는 종종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참을성이 없어지고 화가 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9	나는 종종 그냥 주저앉고 싶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0	나는 때때로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1	나는 때때로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빨리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 남겨지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3	따뜻한 물로 목욕하면 위로받는 기분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4	실컷 울고 나면 기분이 나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5	나와 가까운 누군가에게 꼭 안겨 있으면 위로 받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6	나와 가까운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7	내 기분을 나쁘게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8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손을 꼭 잡아주고 있으면 위로받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9	누군가 나를 꼭 껴안아주는 것으로 더 이상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0	누군가 나와 가깝게 있다는 생각이 내게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1	나와 가까운 누군가에게 안겨있는 것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2	가까운 누군가가 내 어깨나 등을 두드려 주면 기분이 나아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대인관계 스트레스

III. 다음 문항을 읽어보시고 평소에 나를 잘 나타내는 곳에 √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의윗사람은 나의 능력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윗사람은 종종 부당한 지시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윗사람은 내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윗사람은 내가 한 일을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윗사람은 나에게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와 동등한 관계(친구나 동료)들과 생각, 감정, 기대 등을 공유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와 동등한 관계(친구나 동료)들과 내 목표가 잘 조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와 동등한 관계(친구나 동료)들을 신뢰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나와 동등한 관계(친구나 동료)에게 나에게 대한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나와 동등한 관계(친구나 동료)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킨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의 아랫사람과 나의 의견이 상반되어 부딪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가끔 나의 아랫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 감정보다 나의 아랫사람의 감정을 우선시 한적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가끔 나와 무관한 일로 나의 아랫사람의 불만을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스스로 나의 아랫사람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대인관계

V. 다음 문항을 읽어보시고 평소에 나를 잘 나타내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 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믿음직스럽고 진실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거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항상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염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사람들이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과 적절하게 눈을 마주쳐서 경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입장이 제대로 잘 전달되었는지 자주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는 현재 상태의 개선을 주로 염두에 둔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관계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에게 대해서 상대방에게 알린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아는 사람들에게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한지 자주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상대를 만날 때 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정보와 관련된 문항으로 해당되는 곳에 √ 표시 해주십시오.

1. 성별 : ① 남 ② 여
2. 연령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이상
3. 거주형태 : ① 1인가구 ② 부부 ③ 기타 가족구조()
4. 반려동물 종류 : ① 개 ② 고양이 ③ 기타()
5. 키운 기간 : ① 2년미만 ② 2년 이상-4년 미만 ③ 4년 이상-6년 미만
④ 6년 이상-8년 미만 ⑤ 8년 이상-10년 미만 ⑥ 10년이상
6. 반려동물과 상호작용 시간 :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이상-2시간 미만
③ 2시간이상-3시간 미만 ④ 3시간이상-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글

논문이 마무리가 된 시점에 뒤를 돌아다 보면 결코 혼자였으면 시작조차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저의 곁에서 응원해주시고 묵묵히 도와주신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성문 교수님 감사합니다.

석·박사 과정 내내 저도 몰랐던 저의 재능을 찾아주시고, 뭐든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논문을 쓰는 동안에는 “내가 개, 고양이에 관심이 없었는데 네가 반려동물을 쓰니까 요즘은 내가 TV에 반려동물 방송을 다 보게 되더라.” 그리고 “이거 참고하세요.” 하면서 신문에 나와 있는 반려동물 기사를 캡처해서 보내주시거나, 반려동물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담긴 논문을 찾아서 보내주신 교수님의 마음을 느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보다 저를 더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신 교수님이 계셨기에 제가 논문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하고, 고맙고, 존경합니다.

부족한 저의 논문이 좀 더 완성도 있는 논문으로 될 수 있게 심사해주시고 꼼꼼하게 피드백해주신 강승희 교수님, 주동범 교수님, 최은영 교수님, 이상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들의 지도 덕분에 논문이 방향을 찾을 수 있었고, 가치 있는 박사논문으로 갖춰나갈 수 있었습니다.

함경애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박사논문을 시작조차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쌤 논문은 책임지고 봐줄게.” 라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어찌나 든든하고 의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박은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늘 바쁘신 와중에도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제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사 동기들 감사합니다.

늘 먼저 논문 쓰는 데 도와줄 거 없다고 관심 가져 준 백은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설문지 돌리 때 여기저기 내가 돌려보겠다며 적극적으로 도와준 고서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언니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논문 쓰는 동생 힘내라고 맛난 거 사준 조양순 선생님 감사합니다. 언니 덕분에 에너지 충전해가며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논문 잘 되고 있는지 물어 봐주고 중심 때는 깜짝 등장에 어찌나 든든했는지 요동치던 심장을 진정시켜준 윤정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어 든든했습니다. 1심 끝나고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챙겨준 김지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늘 응원해준 안여정 선생님, 손혜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장은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중심을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먼저 도와주겠다고 손 내밀어 주고, 선물 하나하나, 간식 하나하나에 신경 써주고 챙겨주고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제가 중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합니다.

이해교 선생님 감사합니다.

글쓰기가 부족한 저에게 “이 문장은 이런 의미라 이렇게 수정하시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라며 문장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 봐주시고, 매끄럽게 다듬어 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논문이 좀 더 완성도 있게 마무리된 듯합니다.

손승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영문초록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선뜻 도와주겠다고 손 내밀어주어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이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피드백해준 덕분에 저의 영문초록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형준 선생님, 강수정 선생님, 김지연 선생님 바쁘신 와중에도 잠시 시간을 내어 중심 때 깜짝 방문으로 응원해주고 따뜻한 마음 전해줘서 너무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수빈 선생님, 정금주 선생님, 부경대 후배님들 논문 쓰는데 응원해주고 챙겨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논문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쓸 수 있어 든든했고, 서로 의지가 되어 준 박성현 선생님, 양도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졸업 동기에 끼워줘요”라고 늘 즐거움을 준 이지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가족들 감사합니다.

박사 과정을 마무리하기까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항상 격려해주고 “우리 막내딸 박사 언제 되냐?”라고 관심과 사랑을 주신 나의 부모님이신 김상수님, 권동엽님 감사합니다. “문장 한번 봐줄게”라며 늘 관심 가져준 나의 언니 김명숙님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이라고 불러주는 셋째 오빠 김경삼님, 집안의 자랑이라고 뿌듯해하는 큰오빠 김경선님, 막내 오빠 김경재님 감사합니다. 설문지 참여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고 도와준 우리 아들 서정현, 엄마 논문 맞춤법을 끝까지 신경써 준 우리 딸 서혜정 너무너무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 외 늘 응원해주는 형부, 조카, 올케언니들과 시댁 식구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아주 큰 도움을 준 남편 서창우님 감사합니다. 서창우님의 외조가 아니었으면 제가 박사 타이틀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끝으로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고 사랑으로 지지해주고 챙겨준 부모님과 뒷바라지하는데 힘들다고 내색 한번 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준 남편 서창우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